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친구를 사귈 땐 이익을 추구 말라.
이익을 추구하면 의리가 상하게 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래 교우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13일)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사유에 빠진 오묘한 미소"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반가사유상(제78 · 83호)이 보이는 신비하고 오묘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한다. 해외 유명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이 전 세계 전해지는 70여 점의 반가사유상 중 한국의 국보 반가사유상을 최고로 꼽는 이유도 그 조형미와 예술성이 단연 압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반가사유상을 한 곳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실제, 그동안 두 점의 반가사유상이 한 공간에서 전시된 것은 1986, 2004, 2015년 단 3회뿐이다. 이제는 '한국의 미소'로 대변되는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전용 전시 공간에서 항상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1월 12일부터 상설전시관 2층에 전시실 '사유의 방'을 개관하고,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전시한다. 기존 관람 동선에서 과감히 벗어나 상설전시관 2층에 439㎡ 규모로 마련된 새 전시실의 이름은 '사유의 방'이다. 전시실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공간은 '사유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들로 채워졌다. 늦가을, 두루 헤아리며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처럼 '사유의 여정'을 떠나보길. **글=신성민 기자,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협의기구 생략된 '법인법' 개정 결국 철회

조계종 총무원, 속개한 중앙종회서 개정안 철회

24조 2항 개정 절차규정
미이행 입법예고에 '논란'
종책 질의서도 문제 제기
추후 보완해 재 상정키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등록 법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종단 차원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법 개정시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11월 10일 속개한 222차 중앙 종회에서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개정취지 설명에 앞서, "개정안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스님들의 이견이 있어 이를 반영해 법안을 철회한 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무부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9월 29일 법인법 일부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해 논란이 일었다. 종회에 앞서 법인법 개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석회의에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재차 언급됐다.

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5일이 지난 10월 14일까지였지만, 기간 중 이를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등록법인 대다수가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일부 법인의 경우 "개정 취지를 떠나 개정 절차에서 법인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승려법인으로 종단에 등록된 A사단법인 관계자는 "우리 법인은 사회법적으로 이미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지자체 정기감사나 정기보고 등을 통해 점검되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종단이 조사를 하고 시행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각 법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효율적인 개정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총무원이 일체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시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제24조 2항은 2014년 법인법 제정 당시, 일부 법인들을 중심으로 종단 등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법인이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종단과 법인 간의 불필요한 오해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대해 사찰보유법인 B 이사장은 "법에 규정된 협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시도나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법인법 개정안은 개정취지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종단과 등록법인과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전무한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종책질의를 통해 "법인법의 협의기구 절차에 관한 조항은 법이 성안된 당시 많은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시에는 법인의 의견을 물어 신중히 진행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며 절차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총무국장 원묵 스님은 "협의기구 설립 조항 미이행이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게 된 이유"라며 "개정취지와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법인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있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긴 했지만 법으로 규정된 절차인 협의기구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2면〉

건학위로 뭉친 東大, 대학평가 9위 달성

중앙일보 10일 평가 결과 발표…역대 최고 순위

연구 경쟁력 등 두각보여
사상 첫 톱 10 진입 '쾌거'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동국대는 11월 10일 발표된 202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이전(2019년, 2020년 미실시)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인 9위를 기록했다.

동국대는 △학생교육 부문 5위(이전 8위) △교수연구 12위(이전 27위) △평판도 13위(이전 16위)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순위상승을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7위에 머물렀던 동국대는 2019년부터 시작한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났다. 동국대는 교수연구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15계단이나 대폭 상승했고, 이는 종합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11위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27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4위 △교수당 교내연구비 26위 등 교수연구 부문 모든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약진하며 12위에 올랐다. 학생교육 부문에서 약진도 눈에 띈다. 이 부문에서 동국대는 80점 만점에 54.78점을 획득해 5위를 기록했다. 취업률 부문에서도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 같은 노력 뒤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건학위원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 올해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는 △건학이념 구현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동국인의 원력 결집과 실천을 통한 동국 발전 △미래의 교육과 의료를 선도하는 건학 불사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교육보국'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대학의 기본인 '교육' 자체에 집중했다"면서 "지난 4월 출범한 건학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올해를 제2건학의 원년으로 삼고 'Energize Dongguk'을 넘어, 'Globalize Dongguk'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만원력결집불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함께 합니다.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검색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동참문의 정기후원
백만원력 결집불사 02-6273-0108~9

대한불교조계종

내년부터 사미(니)계 수계 기준 '승랍' 기산

조계종 222차 중앙종회, 처리 안건은

'승려법' 가결…2022년 시행
법계 자격완화 개정안 가결
특별재심 '호계원법'도 개정
사회법에 의한 무력화 방지
'종무원법'은 격론 끝에 부결
11일엔 정족수 미달로 유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0일 제222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종법 제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내년 10월부터 조계종 스님들의 승랍은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일괄 기산된다. 승랍기산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불이익을 받거나 출가시점과 관계없이 승랍에 차이가 발생해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1월 10일 제222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심 스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승랍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조계종의 기존 승랍기산은 구족계 수계일을 기준으로 종단 기본교육기간인 4년을 더하는 방식이었으나, 기본교육기관 입학 시기에 따라 승랍에 차이가 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종회는 해당 법안을 논의한 결과,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에 한하여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로 수정개정안을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승려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구족계 수계와 관계없이 승랍이 기산된다. 총무부가 원만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일은 2022년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총무부에 따르면 종법 개정시 승랍이 조정되는 해당자는 4901명으로, 법 개정에 따라 승랍 조정 이후 승려번호 조정을 비롯해 승려증 재발급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요건을 체계화하는 내용의 '법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 명사 법계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체계화해 수행력과 지도력을 두루 겸비한 스님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승려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미 · 사미니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해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제45조 징계 중 공권정지 항목에 '집행기간 중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사미 · 사미니는 징계기간 중에는 구족계를 수지할 수 없다'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권정지의 징계 대상이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에 한정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일부 개선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호계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호계원법 개정안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징계의 집행이 제한된 경우 특별재심을 통해 신속하게 징계에 대한 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사찰의 주지가 신체와 정신적인 병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구본사 주지의 제청과 총무원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후 사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종무원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특성상 적용 사례가 다양한데다, 예측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내재된 만큼 논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국 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키로 하고 거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38명이 찬성을 선택했지만,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중앙종회는 이날 종법 제개정안과 종책질의를 끝으로 정회하고, 11월 11일 속개해 내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인사안건, 각종 특위 구성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유회했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결산종회가 성원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해 논란을 빚었던 정청래 의원과 관련, 집행부의 대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종회는 11월 16일 회기일까지 종회의원 스님들의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차주상보〉

원행 스님, '파키스탄의 별' 명예훈장 수상

11월11일 양국수교 38주년 맞아 한국인 두 번째…평화 증진 공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파키스칸 정부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원행 스님은 11월 11일 서울 롯데호텔 3층에서 열린 '한국-파키스탄 수교 38주년 기념 VIP초청 리셉션'에서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로부터 명예훈장 '파키스탄의 별'을 받았다.

'파키스탄의 별' 명예훈장은 매년 파키스탄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별로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 수여하는 것이다. 원행 스님은 한국-파키스탄 평화 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인으로는 2018년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 수상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이번 명예훈장 수상은 원행 스님이 2019년 11월 19~24일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인연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 원행 스님은 조계종 대표단 40여 명과 함께 '부처님 고행상'이 있는 라호르 박물관을 비롯해 대승불교와 불교예술이 번창했던 유적지와 순례길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방문에서 맘눈 후세인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 등을 만나 한국 불교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파키스탄 불교 문화재 보존 및 복원관련 기술 교류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간다라 불교 문화 유적 복원을 위해 훈두박물관에 종단 지원금 5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는 명예훈장 수여에 앞서 신라시대 혜초 스님이 파키스탄 지역을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파키스탄의 그간의 우정을 설명한 대사는 "원행 스님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양국간 유대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고 한국인들이 파키스탄의 불교유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파키스탄 대통령을 대신해 국가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로부터 명예훈장을 전달받은 원행 스님은 먼저 2019년 파키스탄 방문을 떠올리며 불교유적을 잘 보존하고 간직해 온 파키스탄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원행 스님은 "조계종 사부대중은 한국, 파키스탄 간 우호와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 양국간 문화적 교류가 더욱 깊어지는 데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오랜 역사 속 문화적 공감대를 함께 한 만큼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사에게 백제금동대향로를 선물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나눔의 집 내홍 심화…11개 안건 중 1건 처리

11월 9일 논란 속 8차 임시이사회 개최

신임감사 인사안만 가결
김미선 · 우봉 스님 선임

나눔의집 정상화를 두고 임시이사회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임시이사 5명이 이사회를 앞두고 다른 이사들을 '조계종 측 이사'로 지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사실상 '편 가르기'식 행보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나눔의집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임시이사회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양분화된 상황에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눔의집 임시이사회는 11월 9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제8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총 11명의 이사 가운데 스님이사 4명을 포함해 9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사회는 개최 전부터 이사들이 양분화돼 한쪽에서는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는 등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았다.

2시간여 열띤 논의에도 11건의 안건 중 추천감사 선임의 건 1개만 처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추천받은 김미선 공인회계사와 정식이사들이 추천한 우봉 스님 2명이 감사로 선임됐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신임이사로 선임된 최종환 임시이사는 개회에 앞서 이찬진 임시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5명의 임시이사들이 스님이사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자신을 '조계종 측 임시인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이사는 "10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사회복지협회에서 부회장, 윤리위원 등을 맡는 등 사회복지계 전문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 조계종 측 이사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참담하다"며 "편가르기 식으로 양분된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원칙과 양심에 따라 이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이 됐던 이사회 공개여부 역시 논의 끝에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

나눔의집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임시이사회가 1년 가까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정상화는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변화는커녕 되레 양분화 형국으로 내부갈등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나눔의집 사태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내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이사회가 난항을 겪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라며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광주시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차기 이사회는 12월 22일 오후 2시 나눔의집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임은호 기자 imeunh@hyunbul.com

조계종, 미얀마 지원기금 1억900만원

로터스월드 등 불교계NGO단체에 긴급식량 · 방역물품 지원 예정


원행 스님은 11월 10일 미얀마 민주화 기원 성금 1억9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쿠데타와 코로나19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 자비의 손길을 건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1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얀마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단체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네트워크에 미얀마 민주화 기원 성금 1억9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로터스월드, 지구촌공생회, 더프라미스 등 국제국호단체에 각각 2600만 원,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에 3100만 원이 전달됐다. 각 단체들은 기금을 쿠데타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긴급 식량과 방역물품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원행 스님은 이날 모인 불교단체 대표들에게 종단을 대신해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지부가 속해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더프라미스 묘장 스님도 "불자들의 정성을 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의미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기념촬영을 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상월결사 2주년도 '불교중흥' 위해 회향

11월 11일 기념식 및 삼보순례 회향식 봉행

순례 완보 88명에 증서수여
선서화전 수익금 단체 전달
자승스님 "불교 위기극복을"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완보자들에게 책으로 만들어진 완보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한국불교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회주 자승)가 2주년을 맞아 불교진흥을 위한 회향무대를 열었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인근 라빌웨딩홀에서 상월결사 2주년 기념식 및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념식 및 회향식은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2019년 11월 11일 입재한 위례 상월선원에서의 90일간 용맹정진, 그리고 이어진 2020년 만행결사 자비순례와 2021년 만행결사 삼보순례 등을 돌아보고, 새로운 힘을 얻는 자리였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보고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19일간 승보종찰 송광사부터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423km에서 펼쳐졌다"며 "비구 49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사부대중 94명이 첫발일 내딛어 88명의 사부대중이 완보했다. 순례지원단은 14명이 완보해 108명이 보살행을 이루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화엄사 실상사 표충사 천은사 등 유서깊은 9곳 사찰 참배와 함께 전라도와 경상도 등 5개 광역 단체와 순천 곡성 남원 고령 합천 창녕 밀양 등 12곳 기초단체를 순례하며 지역마다 뛰어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를 체득했고 불교 중흥의 원력을 키웠다"고 발표했다.

이날 삼보순례를 완보한 88명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완보증서가 책으로 만들어져 전달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완보증서를 수여하며 생활 속에서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총도감 호산 스님은 삼보순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과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감사패와 죽비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흥을 위한 선서화전 수익금을 불교단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모연액 29억 5300만원 중 불교단체 지원기금 28억 여원이 조성됐다.

지원기금은 △불교법당 건립과 불교성전 법보시 등을 포함한 종립 동국대 중흥기금 △불교언론 중흥기금 △탄자니아 보리가람 학교 지원금 △나란다축제 등 청소년 포교 진흥기금 △인도만행 기금 1억원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중앙승가대 교육기금 △학인스님 장학금 △중앙종책모임 종책개발기금 등으로 모두 회향됐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는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이웃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포교했는지 되새겨야 한국불교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원로의원 자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창회장 성행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및 주요사찰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 "정청래 막말 대신 사과"

11월 8일 원행 스님 예방서
"韓문화 뿌리 불교 지원"을
나눔의집 문제 해결 의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예방 직후 기념촬영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이 후보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원행 스님의 "국정감사 당시 노고가 많으셨다"는 발언에 화답하며 "우리 식구가 불교계에 심려를 끼쳤다. 당 대표도 사과했지만,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뿌리이며, 불교계는 국가가 할 일 대신하며 재산권 등에 제약과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규제와 제약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궁이나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찰은 스님이 사시니까 국가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와 49조에 의거해 받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전환 이후에도 원행 스님과 이 후보는 불교문화재 정책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며, 나눔의집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계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마감 전까지 해당 문제가 상당히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불교계의 의견을 들어보니 마무리가 다 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잘 살피겠다"는 뜻을 조계종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행 스님은 "이 후보께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 후보로서 그 뜻을 잘 계승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허가 최종 불허

남부지방산림청, 11월 4일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 인근에 허가됐던 채석장 개발이 최종 불허됐다.

조계종 사회부 환경위원회는 11월 5일 "남부지방산림청이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 사업 논란은 지난 6월, 산림청이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채석장으로 개발하려던 부지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폐광산으로, 봉암사까지 거리가 겨우 1km 거리에 불과하다.

개발 허가 발표 후 조계종 환경위는 환경전문가들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보호에 반하는 정책을 편 산림청을 규탄하며 채석장 개발 허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1월 11일 심사 연기에 성명
8일부터 릴레이 기도회 돌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11월 8일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즉각 제정돼야 한다."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이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된 것에 대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회노동위)가 성명을 내고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노동위는 11월 11일 '국회, 14년 동안 미뤄온 차별금지법 심사 또 미뤄…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특히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상정한지 43초 만에 결정된 것이기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노동위는 성명에서 "법사위원장이 연장 요구 건을 상정했지만 여야의원들의 침묵으로 단 43초만에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염원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며 개탄하고 "1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반복된 '나중에'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노동위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격주 기도회, 국회-청와대 염불행진, 국회 둘레길 오체투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오체투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 순회 30km 오체투지 등을 해왔다. 또 11월 8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봉행한 바 있다.

사회노동위는 "국민의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촉구하는 법을 일부 기독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연제까지 여야는 미루고 끌려다닐 것이냐"며 "일부 보수기독교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여야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사회노동위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차별로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고, 죽음에 이르는 국민들이 있는데 또 미루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선학원 쇄신, 법진 이사장 청산서 시작"

선학원 미래포럼, 11월 10일
법진 스님 재선출 반대 집회
"선학원정상화 진력" 선포해



"선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인적 쇄신은 성범죄 전과자 최종진(법진)을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 전과로 물의를 빚은 법진 스님을 21대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것과 관련,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이 집회를 열고 공식 항의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11월 10일 서울 선학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법진 스님의 퇴진을 요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선학원미래포럼 위원 심원 스님은 '성범죄전과자 법진(최종진) 선학원 4선 이사장 웬말이냐'는 제하의 성명에서 "100년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불교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선학원이 창립정신을 망각하고 재산관리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넘어 이제는 성범죄자 이사장으로 인해 세간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선학원을 이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법진 이사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선학원미래포럼은 선학원이 세간에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법진 스님이 '성범죄 전과자'이기 때문이라며 "청정승풍을 수호하고 '정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선학원 역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창건주 · 분원장은 법진 이사장이 이사장과 이사직에 물러나고 선학원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법적, 행정적 조치는 물론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은호 기자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창종법회

종정 보명당 석원정 (사서실장 석현경)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법성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양주석(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창종법회장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1리 617 대원사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

나란다 축제, 삼보순례 메타버스로 구현

은정불교문화진흥원 11월 10일 제13회 대회 요강 발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삼보순례에서 발현된 불교혁신의 정신이 불교계 최대 청소년축제인 '나란다 축제'에서 메타버스로 구현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제13회 나란다축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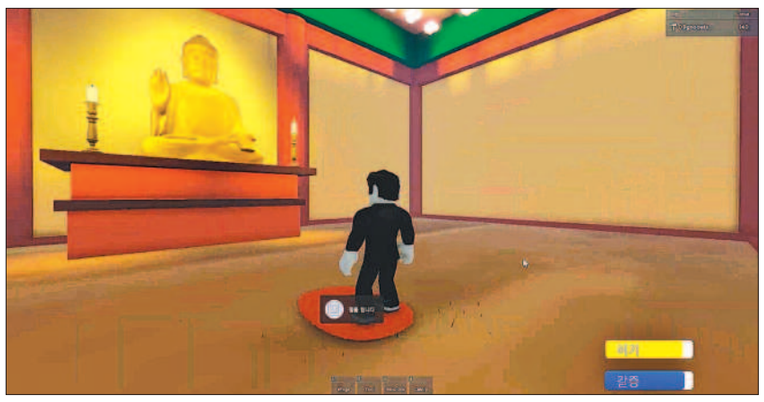
제13회 나란다축제에서는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 △만보가 모여 천리 △불교교리경시대회 △108유튜브 공모전 △캘리그라피 공모전 △독후감 공모전 등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나란다축제에서 눈여겨 볼 것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활용한 삼보사찰의 메타버스 구현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가상현실 속 삼보사찰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들

로블록스 활용, 송광사 체험 제공
1만보걷기 등 삼보순례 정신 계승
교리경시대회는 줌으로 결선진행

은 12월 10일부터 로블록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샷을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해시태그(#로블록스 #나란다축제 #삼보사찰 천리순례)와 함께 업로드 하면 선착순 108명에게 기프트콘이 제공된다. 현재 송광사 맵이 구현된 상태로, 향후 해인사, 통도


로블록스에 마련된 송광사 법당. 이곳에서 나란다 축제가 열린다.

사 맵 또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정충래 나란다축제 기획위원(동국대 이사)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해 일선 학교 교법사와 선생님들과 아이디어 발굴 작업을 했다. 아이들이 훨씬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 삼보순례의 정신을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만보가 모여 천리(삼보사찰 천리순례 함께하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 학생은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삼보순례의 자료와 영상을 시청하고, 기간 내 하루 1만보 이상 걷기 후 (인증 어플 무엇이든 가능) '걸음 수 스크린 샷'을 패들렛에 간단한 소감문과 함께 올리면 된다. '만보가 모여 천리'는 11월 15~19일, 11월 22~26일, 11월 29일~12월3일 총3회에 거쳐 진행되며, 회차당 선착순 108명에게는 기프트콘이 증정된다. 또한, 인증이 확인된 참가자 600명에게는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추가 증정된다.

이밖에 종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란다축제 대표행사인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학교에서 자체예선을 진행하고, 학교당 10~15명의 결선 진출자를 선정, 줌 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결선을 치룰 예정이다.

또 '108 유튜브'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찰 △걷기명상 △나의 꿈 등을 주제로, 108초 내에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파라미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란다축제 공동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조합하여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과 세계인들에게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급하겠다"며 "나란다 축제는 단순한 청소년 축제가 아닌 세계일화를 상징한다. 나란다 축제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많은 이들이 시름을 잊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미얀마 사업 통해 3만여 명 수혜

10일, 재난위험경감 성과보고
5년 간 10억5200여만원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2016~2020년 미얀마에서 벌인 재난위험경감 사업을 통해 총 3만921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액은 10억5200여만원에 달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10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3층 라이브홀에서 '2016~2020 미얀마 재난위험경감 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사진〉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 성과소개, 성과 및 교훈, 그리고 토론으로 진행됐다.

재단 오성근 담당관의 성과소개에 따르면 재단은 5년간 사업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에야와디 주 랍타군 몰레미얀준면 내 54개 마을 27개 학교 총 3만91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교육 및 훈련 활동에는 총 7155명이 303회에 맞춰 참가했다. 대피소 5개동, 대피용교량 8개소, 대피용 도로 4개소 등 17개의 재단 대응 시설물을 건축했다. 사업비는 총 10억 5190만8570원이 집행됐다.

이경신 컨설턴트의 '사업의 성과와 교훈'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강도욱 맘보싸와싸와 대표, 김선희 대한적십자사 센터장, 이경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부장, 오원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재단이 재난위험경감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화 및 전문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강화 및 지역사회 재난 복원력 강화활동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교훈과 제언을 재단의 인도적 지원 전략 및 성과관리에 적극 반영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단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제18회 대원상 대상에 무비 스님 선정

진흥원, 8일 수상자 발표
다보빌딩서 시상식 개최

(재)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8회 대원상 대상에 前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또 특별상은 출가부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성행 스님, 재가부문에는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주형)과 통일부 홍성란 탈북민 가정체험 교육강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려상에는 본지 필진인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2021년 제18회 대원상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11월 8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원상(大圓賞)은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 정신과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출가 부문 대상자로 선정된 무비 스님은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한국 최고의 강백(講伯)으로 평가된다. 대원상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스님은 승가교육



이 확립돼야 불교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평생의 원력으로 방대한 분량인 전 81권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을 비롯해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천수경〉 등 불교 경전 강설과 불교 저술을 발간해 불교의 가르침을 앞장서 전파했다.

특히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염화실) 개설과 유튜브(소참법문) 등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불자들이 공부와 신행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 적극적인 불교 포교 활동을 펼쳐왔다.

승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성행 스님은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을 비롯해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동련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등 청소년 단체를 이끌며 어린이, 청소년 힐링센터 운영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포교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부분 특별상 수상단체인 한국불교문화원(이사장 이주형)은 불교의 총체적 연구와 올바른 신행관 정립, 한국불교의 해외 선양을 목표로 1974년 故 불연 이기영 박사의 주도로 창립한 후 불교 교육 불사를 통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자상 구현에 매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가부문 특별상 수상자인 홍성란 통일부 교육강사는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하면서 2007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이끌어 왔다.

재가부문 장려상 수상자인 강소연 교수는 30여 년간 불교문화재를 연구해 온 학자로, 20년 가까이 해외 유출 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하고 불교문화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제고에 앞장서 왔다.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에게 대상 2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 장려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MZ세대 맞는 불교인성교육법 고민해야"

동국대 종학硏, 11일 '포교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유아~대학생 교육 중심으로
포교 활성화 방안들 논의돼

교육 현장에서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1월 11일 교내 혜화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 활성화 방안-유아·청소년·대학생 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형준 前 동대부여고 교장은 주제발표한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불교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김 前교장은 윤리·도덕 등 학교 교과목을 활용한 학교 내 인성교육과 명상·염불·다도 등 사찰에서 활용 가능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오늘날 인성교육은 시민윤리와 세계인의 교양과 인격,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윤리 등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불교교단은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에 맞춰 디지털 교화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포스트 코로



나 이후 비대면 사회 맞는 인성프로그램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대표 불교교양강좌인 '불교와 인간' 강좌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 포교 방안에 대해 김은영 연구초빙교수와 이석환 학술연구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했으며, '자아와 명상' 책임 교수인 휴담·원담 스님도 강좌를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명진 스님이 '육바라밀 기반 철학적 탐구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향후 학술대회 의제는 최근 '불교중흥'이라는 불교계의 화두에 맞춰 대상별·주제별로 나눠 시리즈로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종합예술 영산재엔 희망 담겼죠”

영산재 대중화 나선 대학생팀 ‘영며들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산재(靈山齋),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을 현재 자리에 재현하는 불교 의례로, 법회를 통해 무주고혼을 천도하는 의미를 가진다.

불교를 대표하는 의례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불자들은 드물다.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영산재의 존재에 대해 알 리가 만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산재의 대중화와 홍보를 위해 나선 대학생들이 있다. 지난 5월부터 영산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영며들다’ 팀이다. 팀에는 서준영(23, 고려대 사학과) 씨를 팀장으로 박지혜(23, 단국대 무역학과) · 허윤서(22, 연세대 동아시아국제학부) · 황유진(21, 고려대 사학과) 씨가 팀원으로 참여했다.



영산재 대중화에 나선 대학생팀 ‘영며들다’ 팀원들. 사진 왼쪽부터 허윤서(22, 연세대), 황유진(21, 고려대), 서준영(23, 고려대), 박지혜(23, 단국대) 씨. 사진=박재완 기자

청년 세계 유산 지킴이 참여
팀원은 전부 ‘종교 없음’에도
인류 무형유산 ‘영산재’ 관심
“담긴 의미도 전하고 싶었죠”

소속 대학도 관심사도 전부 다른 이들은 올해 실시된 문화재청의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며 만났다. 팀이 된 4명의 대학생들은 물망에 오른 여러 세계유산 중 ‘영산재’를 선택했다. 선택한 이유를 묻자 “‘다른 불교문화유산과는 달리 왜 알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자료를 봤는데 영산재에는 음악도 있고, 춤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 문화유산과는 다르더군요. 그래서 ‘불교’만 바라보는 게 아닌 ‘영산재에 담긴 역사 · 예술 · 사회적 가치를 알리자’는 목표로 의기투합한 것이죠. 대중들이 영산재에 가치를 알고 스며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팀명도 ‘영며들다’로 했습니다.”(서준영)

영산재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이들의 종교는 사실상 ‘무교(無敎)’다. 몇몇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불교에 친숙하기는 하나 신앙적으로 불교를 접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중심인 20대 초반. 그래서인지 이들의 홍보 활동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종횡무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톡톡 튄다.’

MZ세대의 소통 창구인 인스타그램은 기본이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카드뉴스 · 영며들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등 다양한 영산재 홍보 콘텐츠들을 올렸다. 영며들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는 카드뉴스를 통해 전해진 영산재에 대한 상식에 대한 테스트로, 이벤트도 진행해 만점자에게는 추첨으로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영며들다’가 제작된 웹툰 〈49일의 약속〉 한 장면. 네이버 ‘도전 만화가’에 올렸다.

또한,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가’ 코너에 〈49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연재하거나 영산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영산재 앱게임’도 개발했다. 이 앱게임은 올해 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수박 게임에서 착안해 제작한 것으로, 작은 공처럼 생긴 영산재 절차들을 순서대로 모아 마지막 절차까지 완성하면 되는 게임이다.

이 모든 온라인 콘텐츠가 5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간 이뤄진 결과물들이다. 각자 맡은 바 업무 파트도 나눠져 있다.


한복을 차려 입고 고궁을 찾은 ‘영며들다’ 팀원들이 외국인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 · 오프라인에서 영산재 활동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가장 막내인 황유진 씨는 웹툰과 애니메이션 제작을 박지혜 씨는 영상 · 카드뉴스 제작과 SNS 관리를 맡았다. 해외 경험이 풍부한 허윤서 씨는 카드뉴스 총괄 · 웹툰 영어 자막 · 언론 보도 자료 배포를, 팀장인 서준영 씨는 기획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 · 총무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같은 업무분장은 각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다. 웹툰을 제작한 황유진 씨는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서포터즈를 보면 인스타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며들다’만의 차별성을 주고 싶었어요. ‘영산재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불교의식인데 이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불교보다는 문화의 형태로 대중이 받아들였으면 했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스크롤 형태의 웹툰을 제작했죠. 공개하는 곳도 대중적이고 유명한 포털사이트 웹툰 플랫폼을 활용했습니다.”(황유진)

스님들이 배우고 익히는 영산재에 대한 지식을 압축해 전달하는 카드뉴스 제작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담당자인 박지혜, 허윤서 씨와 팀원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내용과 디자인을 확정했다.

“카드뉴스 제작에서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영산재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며들다’팀은 매주 스터디를 하는 마음으로 주제에 맞춰 자료를 찾아오고, 이를 토대로 카드뉴스 담당자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작했습니다. 자료는 논문이나 불교계 언론 기사를 참고했죠.”(박지혜)

‘영며들다’ 팀은 코로나19 유행이 조금 줄어들면서 지난 10월부터는 오프라인 활동에도 나섰다. 영산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하게 엮은 팜플렛을 각종 행사에서 배포했고,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의 만남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과 11일 영산재보존회 소속 신덕 스님, 일운 스님을 만나 영산재 보존 및 계승 현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콘텐츠화해 공개했다. 스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산재가 우리 전통문화로서 보존과 계승이 이뤄져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신덕 스님, 일운 스님 모두 ‘영산재를 단순히 종교적인 색채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전통 문화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매우 공감했어요. ‘영며들다’는 이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앱게임, 웹툰을 통해서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하려 합니다.”(허윤서)

11월부터는 통영 문화재야행에서 불교문화 체험부스 운영을 비롯해 E-MUSEUM 웹 전시 개최를 위해 현재 자료 수집 및 정리에 들어갔다. 온라인 박물관에는 영산재의 의미와 절차부터 주요 가무, 사용 물품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로 ‘영며들다’의 공식 활동을 끝마치지만, E-MUSEUM을 통해 ‘영산재의 대중화’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고종에서 추진하는 영산재 박물관 건립에 기여하는 것도 ‘영며들다’ 팀의 목표이기도 하다.

MZ세대답게 웹툰 · 게임으로
영산재의 대중화 홍보에 나서
인스타 등 SNS 적극 활용도
“영산재 E뮤지엄 설립 추진”

인터뷰의 마지막, “영산재를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희망”, “양파”, “종합예술”, “동그라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영산재는 천도의식이지만, 현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위로나 코로나19 극복 등의 염원을 담기도 하더군요. 결국 천도 법문을 통해 남겨진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산재는 ‘희망’입니다.”(박지혜)

“어떻게 보면 영산재는 음악과 무용이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판소리와 같이 영산재도 종교를 넘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었으면 해요.”(황유진)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영산재는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양파’ 같아요.”(허윤서)

“영산재는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포용합니다. 영산재는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서준영)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시행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종단 승려복지정책 추진과제 정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 불기2565(2021)년 11월 25일(목) 13:00~17:00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좌장(사회) : 보각스님(승려복지회 위원)

주제 1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 발제 : 최영신 교수(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 지정토론 : 주경스님(수덕사 부주지)
원묵스님(총무국장)

주제 2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
• 발제1 : 박재현 소장(신대승네트워크 / 교구본사 종합)
• 발제2 : 최효진 과장(직지사 복지과장)

주제 3
승려복지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덕문스님(화엄사 주지)
• 지정토론 : 가섭스님(중앙종회의원)
법일스님(중앙종회의원, 승려복지회 위원)

종합토론
• 정관스님(중앙종회의원, 종로노인복지관 관장)
• 공방환(승려복지회 위원)
• 안성모(월정사복지재단 삼화사 노인요양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회장 금 곡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정토마을, 적멸보궁 간월사 극락보전 상량

11월 6일, 극락보전 앞마당서

부처님 정골사리 이운불사 계기
연면적 1661㎡ 규모 총 3층으로
다목적공간, 법당 · 힐링광장 등
준공 예정일은 2022년 1월 31일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불교계 호스피스 활동을 이끌고 있는 울산 정토마을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간월사가 세워진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11월 6일 3층 간월사 앞마당에서 '정토마을 간월사 극락보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사장 능행 스님의 전법 원력으로 조성되는 간월사는 자재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안식처로 회향될 예정이다.

법요식에는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 한국스리랑카 불교원장 완사 스님, 세심사 승인 스님, 학림사 수환 스님, 오봉사 혜원 스님, 정토마을 센터장 지덕 스님, 장익 前 위덕대 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 식전행사로 티베트 뮤지션 빤빠의 축하무대와 상량의식, 축원, 찬불음성공양 등이 진행됐으며 2부 상량법요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고불 △청법가 △법문 △내빈소개 △인사말 △격려사 △축사 △공사현황보고 △상량식 및 꽃비 뿌리기 △인사말 △사홍서원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혜국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일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월사 상량법회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인생이 짧은 것을 알아 삶과 죽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는 그 날까지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능행 스님은 "불법을 널리 펼치려는 일념으로 의료와 교육 사업의 장으로 이곳 정토마을에 마하보디 교육원과 자재요양병원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을 설립했다"며 "이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부처님 정골사리 1과를 기증받아 모시게 돼 정토마을 사부대중들은 간월사 적멸보궁 창건 불사의 뜻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토마을 간월사 건립불사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토마을을 일구어가는 모든 대중들은 정진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는 11월 6일 3층 간월사 앞마당에서 '정토마을 간월사 극락보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한국스리랑카 불교원장 완사 스님은 "정토마을이 실천하는 부처님의 자비 나눔에 깊이 공감한 스리랑카 정부가 부처님의 사리를 정토마을에 기증했다. 스리랑카 대통령은 직접 이 진신사리 1과를 능행 스님께 전달하며 모든 사람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모셔주시기를 부탁한 바 있다"며 "능행 스님께서는 이 부탁을 잊지 않으시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불사를 시작해 오늘 상량식이 더욱 뜻깊다"고 감회를 말했다.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는 2016년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정골사리 1과를 기증받은 인연으로 적멸보궁 간월사 불사 원력을 세웠다. 2019년에 연면적1661㎡ 규모의 현대건축 양식으로 설계를 마무리 했으며 설계는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김개천 교수가 담당했다.

간월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됐으며 지하 1층은 아미타 부처님을 봉안하는 공경전으로, 염불수행과 기도,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마련된다. 지상 1층은 상락아정으로 영혼을 위한 힐링정원이며 만년위패와 삼천불(원불)을 봉안한다. 지상 2층은 적멸보궁으로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골사리 1과와 티베트 달라이라마와 포탈라궁에서 이운한 사리 2과를 봉안한다. 준공은 2022년 1월 31일 예정이다.

제11회 반야학술상, 김종명 교수 수상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11월 7일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제11회 반야학술상'을 봉행했다.

수상자는 김종명 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이다. 김 교수는 불교의례와 전통불교문화를 연구하며 저서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2018),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2013), 〈한국의 세계불교 유산〉(2008),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2001) 등을 발표한바 있다.

시상식은 △개회 △삼귀의례 △인사말 및 축사 △시상 △수상소감 및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명 교수는 "저는 오늘의 이 수상을 학문적 채찍으로 생각하고 정신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욱 더 정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국교수불자, 코로나 이후 불교 방향 모색

11월 5~7일, 2021년 한국교수불자대회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11월 5일~7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불교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송일호 · 이하 교불련)가 11월 5~7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불교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봉행했다.

교불련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불교중흥의 발전방향과 방법, 다양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으며 총 25편의 논문을 8개의 분과로 나눠 발표했다. 발표는 디지털시대에 맞춘 중흥방안 연구와 불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대 흐름에 맞춘 주제와 4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생태계 파괴와 불교역할, 불교존상 뉴미디어 콘텐츠 활용방안 등 다채로운 주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에 앞서 교불련은 개회식에서 입재식을 봉행하며 개최 의의 및 교수불자대회를 도와준 신뇨엔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입재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송일호 교불련 회장의 개회사,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총본부 국제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김성규 명예회장의 활동 및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송일호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해외결핵환자 및 우물파기 후원

후원금 4185만원 한국JTS에 전달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이 11월 6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 JTS 정토회 두북수련원에서 '해외 결핵 환우 의료지원 및 우물파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미소원은 이날 후원금 4185만원을 전달했다. 미소원 회원들은 가정의 경조사가 있을 때 마다 우물파기 후원금으로 150만원과 결핵환자 1인 살리기에 동참하며 1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장유정 이사장은 "정토회의 활동을 응원하며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부하고자 원을 세웠었다"며 "JTS에 대한 신뢰로 도반들이 더욱 마음을 내 협조를 했고 좋은 인연을 이어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11월 6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국 JTS 정토회 두북수련원에서 '해외 결핵환우 의료지원 및 우물파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법륜 스님은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전해주신 후원금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잘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산청 겁외사, 사면불 조성 낙성법회

성철 대종사 생가를 상징하는 조형물 '겁외사 석조사면불' 점안식이 11월 6일 산청 겁외사 입구에서 봉행됐다.

'겁외사 석조사면불'은 너비 3.8m, 높이 6.1m의 입상 형태로 성철 스님의 생가 터인 겁외사 앞에 조성됐다. 석조사면불은 남과 북, 영호남의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으며 동쪽에는 약사불, 서쪽은 아미타불, 남쪽은 미륵불, 북쪽은 석가모니불로 조성됐다.

점안식에는 겁외사 회주 원택 스님, 산청사암연합회 회장 수완 스님, 해인총림 유나 원타 스님, 산청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이재근 산청군수, 심재화 산청군의회 의장, 박우범 경남도의원, 윤태중 금강조각연구소 석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 산신 다례재 봉행

울산 함월산 백양사(주지 산옹)가 11월 6일 대웅전 앞에서 '산신 다례재'를 봉행했다.

백양사는 매년 지역발전과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산신재를 봉행해왔으며 올해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차인들이 연합으로 차를 올려 장엄함을 더했다. 특히 백양사는 올해 3월 산신각과 108 계단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기도처를 조성한 바 있다.

산신 다례재에는 울산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수덕사 유나 천진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박성민 국회의원,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산신 다례재는 △개회 △명종 △내빈소개 △삼귀의례 △반야심경 △육법공양 △108헌다 △내빈헌다 순으로 마무리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사용품 전문기업
금륜사

저희 금륜사는 1991년 회사설립 이후 부처님께 최고의 공양을 올린다는 서원으로 인등을 비롯한 불사용품 제작에 장인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30년의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와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금륜사는 끊임없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고집스럽게 원목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합니다.
- 금륜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로 고객지향의 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010-3781-2460 / 031-534-0048 / 팩스 031-532-2468


불단 · 닫집 · 인등


영단


원불전

전국비구니회, 호국성지 걸은 까닭은

11월 9일 장경사서 '불교유적 순례' 봉행

집행부 출범 2주년 맞아
대사회적 역할 모색 나서
남한산성 축조군승 기려
푸르니환경 캠페인 '눈길'

광주 장경사=송지희 기자


우중에 진행된 이날 순례서는 푸르니청정도량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제12대 집행부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법석으로 회향해 주목된다. 특히 호국성지 남한산성에서 걷기순례를 통해 과거 스님들의 호국원력을 되새기며 종교평화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한편, 푸르니청정도량 캠페인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환경 문제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과제 속 종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9일 경기도 광주 장경사에서 '호국성지 남한산성 불교유적지 순례 및 환경실천 캠페인'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3일 전국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으로 기획됐다. 집행부 소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념행사를 대신해, 보다 실천적이고 발전적인 행보를 통해 변화를 일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애초 전국비구니회 내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이날 순례는 장경사에서 남한산성 성벽을 따라 행선하고 다시 장경사로 돌아오는 1시간 남짓 코스다. 그러나 오전부터 내린 차가운 가을비로 남한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들이 땅을 덮어 참가대중들의 발길을 무겁게 했다. 우비를 쓰고 옷깃을 여며도 때 이른 추위가 뼛속으로 스몄다. 그러나 참가대중들은 멈추지 않고 성본 스님의 죽비소리를 따라 묵묵히 성벽길을 걸었다.

행선에 앞서 회장 본각 스님은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푸르니청정도량 캠페인의 일환으로 남한산성 일대의 쓰레기 등을 줍고 수거해 호국성지를 보다더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때문에 점심공양은 일체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연잎밥과 국, 떡과 과일 등으로 나눠졌다.

두 번째는 남한산성 순례를 통해 함께 걷고 명상하면서 과거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지켜냈던 군승들의 원력을 되새기는 것, 세 번째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 등이다.

본각 스님은 특히 호국성지로서의 남한산성의 의미에 대해 "한국불교가 17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은 물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호국신장의 역할을 해 온 반면, 기독교 역사는 200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카톨릭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을 비롯해 천진암터, 주어사지 등 불교의 원력이 스민 역사적 장소들을 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게 돼, 근본적인 고민과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다른 종교를 향해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명확히 알고 이를 알려 불교의 역사와 장소가 카톨릭 성지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한산성을 첫걸음으로 삼았다"며 "이 시대 호국은, 그리고 종교의 역할, 나아가 종교평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 선운사, 제13회 선운문화제 눈길

수륙무차평등대재, 보은염 이운 재현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1월 6~7일 선운사 일원에서 선운문화제〈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선운문화제에서는 수륙무차평등대재, 보은염 이운식,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1월 6일 선운사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수륙무차평등대재는 조선 성종6년(1475년) 왕실에서 봉행한 이후 10여 년간 봉행된 전통을 지닌 것으로 선운사 가람 중창 후 한동안 중단됐던 것이다.

이날 수륙재는 조계종 어산장 인묵스님 주관으로 선운사 창건주 검단선사가 마을주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가르쳐 생계를 잇게 한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1500년간 봄과 가을에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한 '보은염 이운식'도 열렸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진관사, 삼화사, 창원 백운사 등의 수륙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만 호남권 사찰에서의 수륙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선운사가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수륙재를 복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수륙무차평등대재를 통해 이 도량을 지켜온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교의 근본, 출가사문으로 돌아가는 절차탁마의 첫걸음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라 법흥왕 다례재 및 문화대축전

경주 불국사 신도회(회장 이영숙)가 11월 2일 경주 코모도호텔 잔디광장에서 법흥왕을 기리는 다례재와 행복바라미 지역문화대축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국사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과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은 "신라 법흥왕은 삼국통일의 원동력인 신라불교



를 최초 공인한 분"이라며 "업적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올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광주파라미타, 탁발문화행사 진행

30여 스님들과 70여 재가불자들이 전통시장에서 탁발 행진하는 이색행사가 열렸다. 광주 파라미타청소년연합(지부장 소운, 관음사 주지)은 11월 6일 호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일대서 스님과 재가불자들 100여 명이 함께하는 '제2회 전통 탁발 재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2019년에 이어 2번째 열린 이날 행사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을 비롯한 회원사찰 스님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양



동시장상인회와 서구청(청장 서대석), 조계종 신도회, 백양사 신도회,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운전불자회 등 단체 임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사, 공양미 콘서트 개최

자비의쌀 2630kg 익산시 전달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코로나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공양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4회 공양미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11월 7일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관음사 청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양미 나눔 콘서트는 관음사 주지 덕림스님, 주영호 관음사 신도회장, 이강자 관음사 청년회장 등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관계자만 참석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SNS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착한벗들, 제과자격증 과정 개설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주지)은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11월 8일 전주 아트갤러리 제과제빵학원에서 개설된 제과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에는 전주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10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월, 화, 목 3일간에 걸쳐 3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주춘매 착한벗들센터 센터장은 "손



수 만든 빵과 과자를 가족, 이웃들과 나누면서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는 11월 5일 경내 오백전에서 '오백나한대재, 당신의 나한님은 누구십니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나한전의 의미와 그 공덕을 찬탄하기 위한 행사로,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스님들의 불공, 축원기도에 이어 합창단의 음성공양, 주지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중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백대재 기간만이라도 '내가 당당한 수행자인가?'



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하며 "당당한 수행자란 청정한 삶을 살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팔정도를 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스님 팔순 맞아 지역주민에 회향

80명의 어르신을 위한 80세 노스님의 특별한 잔치가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동구 동원사(주지 지장)는 회주 지각스님의 팔순을 맞아 11월 8일 지역주민 80명 초청 팔순 잔치를 열었다.

'80분의 팔순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팔순잔치'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지장 스님은 "회주스님께서 '당신만



의 팔순 아닌 이 시대를 함께하신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팔순잔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오늘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日류코쿠 대학.
불교 SDGs 활동 이어가

박영빈 객원기자



1639년, 서본원사에 학인스님들을 교육하는 강원으로 시작한 류코쿠 대학. 현재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불교계 종합대학이다. 사진출처=워커 플러스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일본의 한 불교계 대학이 이 국제적으로 설정된 SDGs에 대하여 '불교 SDGs'를 실천해 화제다. 지난 10월 26일, 일본의 '워커 플러스', '야후 재팬 뉴스' 등은 류코쿠(龍谷)대학의 활동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SDGs는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결의한 의제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말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교토에 소재한 정토진종 종립대학인 류코쿠 대학은 이 SDGs가 불교의 가르침과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 독자적인 '불교 SDGs'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류코쿠 대학측은 "SDGs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섭취불사(攝取不捨)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섭취불사란 〈관무량수경〉에 등장하는 말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고통받는 중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류코쿠 대학은 이 섭취불사의 정신에 기반한 불교 SDGs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창업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창업을 보조하고 있다. 류코쿠 대학측은 "불교와 기업은 얼핏 보아서는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불교의 가르침을 근간하여 사업을 일으키고 그 이익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류코쿠 대학은 정토진종의 신도로 실제 근세에 시작하여 현대에 대기업으로 발전한 상인들의 예시를 들었다. "신도인 상인들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모두 좋아야 한다는 '3가지 좋음'을 장사의 이념으로 내세웠다"며 불교의 정신을 생활에서 실천한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류코쿠 대학의 지원을 받아 불교 SDGs를 실천하는 한 사회적 기업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이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를 창업한 타케무라 유키나 대표는 "유기농 채소를 통해 자연환경과 음식을 먹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창업의의를 전했다. 타케무라 대표는"유기농업은 화학비료를 사용했던 땅을 다시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하기에 많은 농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상품도 높은 가격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농가들을 지원하여 유기농업이 확산되게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곳에서 발매한 유기농 이유식은 월 1만 개가 팔리는 등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수익이 더 많은 유기농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류코쿠 대학은 현재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 개개인이 불교 SDGs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측은 "SDGs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빈곤, 교육격차, 젠더문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불교의 사회참여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며 향후 목표를 시사했다.

중국 사찰들, 공산당 영화 강제 상영

당 선전 영화 '장진호 전투' 스님 강제 관람



중국 공산당 선전영화를 관람하는 중국 스님들의 모습.

종교를 통제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른바 '중국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사찰들이 스님들에게 공산당을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월 11일 종교 · 인권 관련 인터넷 잡지 '비터윈터'(Bitter winter)는 "사찰들은 '공산당 역사에 대한 이해'를 명목으로 공산당 관련 영화 관람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며 일례로 톈진 화성사에서 10월 29일 진행된 공산당 관련 영화 관람 현장을 소개했다.

화성사는 당일 공산당에 대한 심층 교육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영화 '장진호 전투'를 상영했다.

영화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제작된 중국 영화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를 뒤바꾼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 고지 탈환을 위해 북쪽으로 진격하던 중 떼로 몰려온 중공군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져 결국 후퇴하게 된 이른바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30만 명 이상의 중공군에 의해 38선 아래로 후퇴했지만, 중공군의 피해는 3배 이상 컸던 것으로 알려져 전술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 받는다.

다만 중국에선 당 선전용으로 최근 해당 영화를 중고등학교와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관람을 독려하고 있다.

화성사는 이날 공식 SNS 계정에 영화 '장진호 전투'를 관람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극적인 역사와 혁명을 일군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장진호 전투에 임한 선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공산당과 중국 역사 의식을 고취시킬 살아있는 교재"라고 호평했다.

이에 지역 불교계에선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역 불교도들은 "부처님께 선 수행자들에게 육근청정(6근으로 저질러진 죄를 뉘우치는 것을 '육근참회'라고 하며, 육근참회를 통해 6근을 끊어내 깨끗해진 상태를 '육근청정'이라 함)을 갖고 정치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며 "공산당 수업은 공산당원들만 참석해야 하는 수업이다. 그런데 승려들에게 공산당 관련 영화를 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교'를 공산당의 한 분파로 인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불만을 성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 법문 그랑프리에 신청자 몰려

진언종 불교청년회
H1 그랑프리 화제



법문대회에서 1위에 오른 세키모토 와코스님(좌)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다나카 센쇼스님(우).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법문. 일본의 젊은 스님들 가운데 가장 설법을 잘하는 스님은 누구일까? 10월 31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종파를 넘어 젊은 스님들이 모여 개최한 법문 대회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0월 30일, 일본의 나라시에선 젊은 스님들의 법문을 겨루는 대회, 'H1 법문 그랑프리 2021'가 개최됐다. H1이란 명칭은 일본어로 법문, 설법을 뜻하는 호와(法話)의 첫 글자와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을 합친 것으로 '최고의 법문'이라는 뜻이다.

이 대회의 시작은 지난 2017년. 진언종 후잔파(眞言宗 豊山派)의 젊은 스님들 모임인 후잔파 불교청년회가 연수의 성과발표회를 겸해 2017년 개최한 'H-1 그랑프리 설법대결'에서 시작했다. 당시 교단에서 뜨거운 반향을 얻은 설법대회는 이후 종단 내의 이벤트로 자리 잡던 중 "종단간의 벽을 넘어선 대회가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는 실행위원들의 발의로 종단을 넘어선 불교계의 행사로 이어졌다.

2018년 고베의 천년고찰인 스마데라(須磨寺)에서 시작된 대회는 세간의 뜨거운 주목과 호응에 힘입어 2019년에 다시금 개최됐다. 지난해에도 계획됐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 일본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실시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다시 열렸다. 실행위원회 측은 "코로나19가 여전함에도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다시 대회가 재개됐다.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참가자를 공모했고, 사찰이 아닌 장소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8팀 9명의 스님들이 출전했다.

실행위 측은 "법문대회는 각 종단이 주장하는 종지의 우열을 가리거나, 자신의 학식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자비와 공생의 불교정신과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 우승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도 실행위는 "법문의 내용과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가에 점수가 주어진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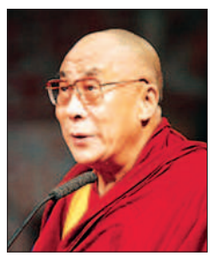
나라시의 나라 100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심사위원을 포함 750여 명의 관객들이 몰렸다. 대회는 또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각 팀은 10분간의 법문을 설하고, 각 법문 후 심사위원과 관객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채점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에는 일본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독일출신 기독교 목사인 헤르만센 박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투표결과 1위에 오른 스님은 융통염불종의 세키코토 와코 스님. 와코 스님은 불단에 공양하는 꽃이 시드는 것을 예시로 법문을 펴쳤다. 스님은 "불단의 꽃이 처음엔 화려해도 끝내 시들어 치워버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소중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중국, 다문화 이해하지 못해"

"시진핑 만날 계획 없다" 재차 밝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86 · 사진)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중국화' 정책에 재차 쓴소리를 남겼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1월 11일 일본 도쿄의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성향은 사람들에게 분명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나 불교 국가인 대만 간의 '불화' 정치에 휘말리기 보다는 현재 머물고 있는 인도에 계속 있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 같은 심경을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역적 · 정치적 어려움에 연루되고 싶지 않지만 대만과 중국이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이 꽤 복잡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만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중국은 공산당 하에 모든 종교 · 문화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이른바 '중국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티베트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달라이라마를 핍박하며 10년 이상 달라이라마 등 티베트 불교인들과 일절 접촉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옥성면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 빙의치유 , 천도 / 전문상담 합니다! ▣ 신기운 제거및 차단, 벗어나기 최고! 전문상담 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 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 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 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악몽자주꿈,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 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빙의천도. 신기운 다스림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 올바른 신심(信心),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법력(法力)을 갖추어 정법(正法)으로 영가 중생 제도 원력(願力)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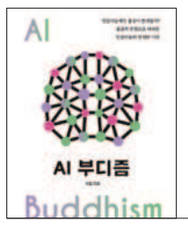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0~11/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스님	불교신문사
2	성자와 범부가 함께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7	선불교의 뿌리	김성철	오타쿠
3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8	딱돌 해설서	중암선해	금빛소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스님	정토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죽기전에 꼭 읽어야할 법화경	손종호	운주사	10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만드는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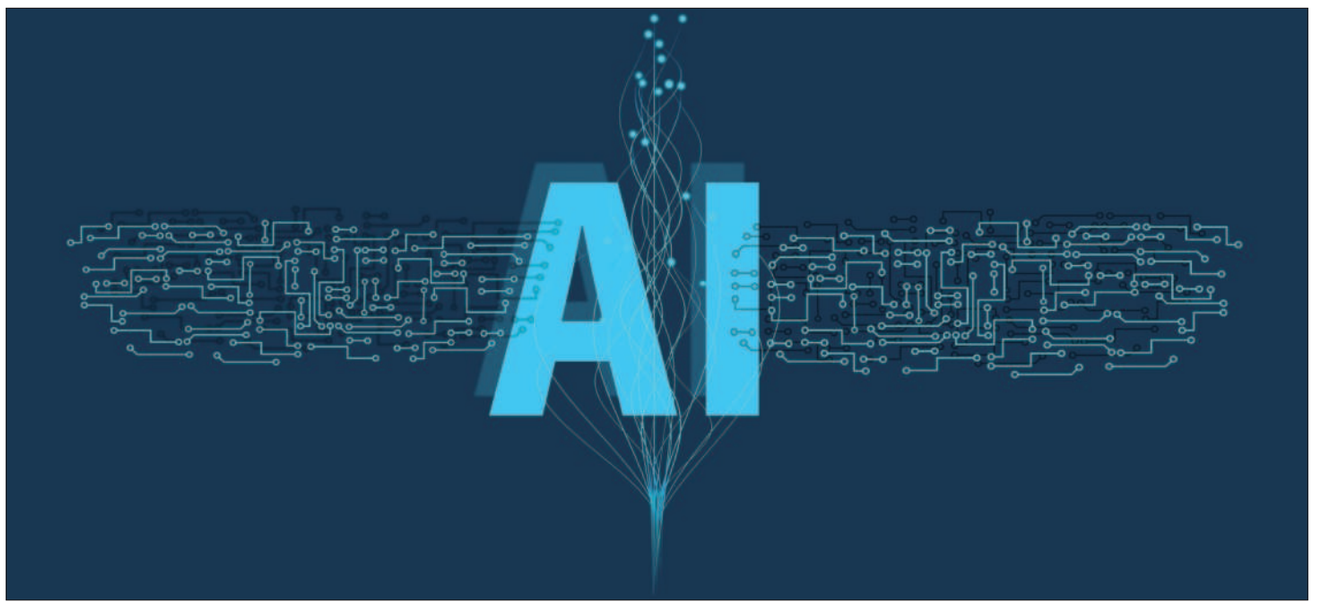
책세상

"인공지능에도 과연 불성 존재할까?"



AI부디즘
보일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적 관점서 바라본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시절인연(時節因緣). 이 말은 시기와 인연이 맞아 떨어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 일도 성취되고 만날 사람도 만나는 것이다. 또한 시절 인연은 무상함, 바로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는 위기일수도 기회일수도 있다. 이같은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변화는 인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다가오지만 시절 인연이 도래함을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저자는 자신이 불교와 인공지능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시절인연'이라고 지칭한다. 해인사승가대학 학인 시절, 저자는 문득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까?"라는 소박한 질문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이 진행되는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덮친 '이중 충격(Double shock)'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공지능'은 자신의 삶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붓다는 열반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훈에서, 세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인공지능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은 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다양한 변화의 모습에 대해 산에 사는 수행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룬 이야기"이자 "데이터 기술로 모든 것이 대체될 수 있는 세상"에서 인간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생존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사유를 함께 담아냈다.

인공지능 시대, 새변화 물결이 밀려온다

'인공지능(AI)'을 떠올리면 모든 기능을 갖춘 완벽한 시스템이 연상된다. 그와 동시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저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기계적 요소가 전혀 없는가'를 되묻는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다. 이러한 질문에 관한 사유, 혹은 고찰은 'AI 부디즘'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로 압축되었다. 인공지능과 불교.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사유"라는 공통 기반을 나눠 갖고 있다. 이 점은 '인간 대 기계'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서로에게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 이렇게 저자는 불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시선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인공지능에게 길을 묻다

1부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놀라운 기술의 발달로 점점 모호해지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언젠가 인공지능에게 던지게 될 질문"들에 관해 언급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뿐 아니라 유전자 편집 기술을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 등 현대의 첨단 기술이 불러올 영향과 논란, 윤리적 문제 등을 예로 들며 갈수록 우리

AI에 대한 인간 시선과 마음조명
AI시대 불교 준비할 대안도 짚어
승가 교육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

의 상상을 뛰어넘는 과학 기술과 인간이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이러한 변화가 "괴물이 될지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들어낼지는 결국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2부 '디지털 자아, 나는 무엇인가'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Metaverse)'이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기술은 "원본으로 간주되는 현실 세계의 아우라(Aura)를 깨뜨리고 그 실재성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시에, 결국 가상 세계이든 현실 세계이든 어떠한 상(相)에 머물거나 그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3부 '인공지능에 길을 묻다'는 의료 인공지능, 나노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기술의 범위와 무한한 가능성이 소개돼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불교와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불교는 지금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어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의존한다는 "연기(緣起)의 도리"를 바탕으로 저자는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인공지능의 혁신 기술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질문, 또한 'AI 시대'에서 승가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한다.

결국은 인간 마음이자 사유이다

'AI 부디즘'이라는 하나의 주제어를 통해 독자들은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다가오는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보일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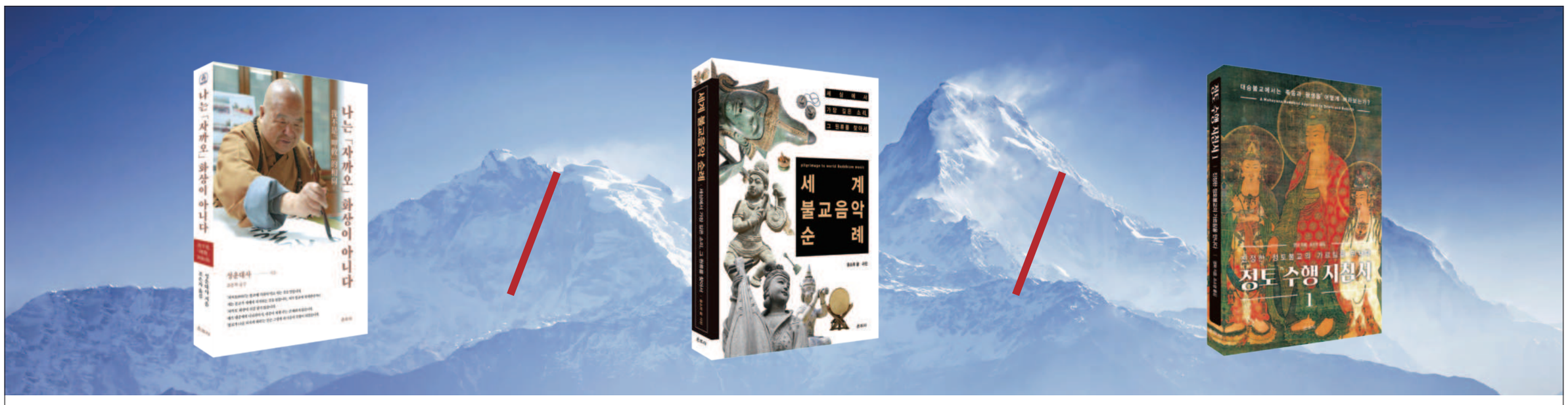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후 서울대 철학과 석사 졸업 및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해인사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인 시절, 전국승가대학 학인 논문 공모전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연구〉대상 수상을 인연으로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시대 속 불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강연, 법문을 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禪)문답 알고리즘의 데이터 연구〉 〈유식체계에 입각한 AI 딥러닝 작동원리 연구〉등이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과연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이란 무엇일까.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새삼 나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떠오른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것은 불성이 머무는 소재가 아니라 그 불성 자체가 흐르는 모습이다. 사라질 수도,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그 흐름 말이다."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中

"인공지능의 업에 대해 생각해 보려면 우선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법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악업을 짓지 말자면서도 그것이 현실 공간 속에서만 국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네트워크 공간을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하듯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 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력과 폭언, 인종차별과 성적 비하 등 수없이 많은 일들은 현실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의식을 덜 느끼면서 행해진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업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인공지능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존재이다. 그러면 인공지능만이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할까? 당연히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안해낸 새로운 법계이다. 인간과 인간만이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인 것이다." 〈인공지능의 업과 윤회〉中

"〈화엄경〉 제 40권에서는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고 설한다.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탐욕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지 지혜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사색이 필요하다. 만약 인간이 인공지능 챗봇에 대해 단지 욕망 확장의 도구 또는 지식의 습득과 소비 도구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붓다와 역대 조사의 지혜를 활용하는 도구로 개발해 갈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챗봇, 선문답으로 심리치료를 하다〉中



불교에 기대지 말고 기여하라!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자까오'는 '불교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을 말한다.
'내가 불교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가 나에게 의지하게 하자'를 평생 지켜온 성운대사의 삶을 만날 수 있다.
성운대사 지음, 조은자 옮김/신국판/380쪽/값 18,000원

불교음악 범패의 원류를 찾아서!
세계 불교음악 순례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찾아 기록한 20년 여정의 대기록!
왜 불교음악은 나라마다 다른가? 세계 불교음악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과 풍부한 사진으로 보여준다.
윤소희 글, 사진/사륙배판/440쪽/값 28,000원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 수행 지침서 1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영화 지음, 조소영 옮김/국판/328쪽/값 15,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야금 지혜 속 '當代 最高' 불교미술이…

〈冶金〉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도 조금씩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위드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가볼만 한 불교관련 전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호암미술관 재개관전 '야금:위대한 지혜'
10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층 전시장
최초 공개 은제아미타여래 삼존좌상 비롯
국보 5점 보물 2점 현대미술 9점 등 선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최초로 공개되는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고려, 14세기, 은, 높이 19.3cm).

상설전을 전면 개편하고 지난달 재개관한 호암미술관이 재개관 기획전 '야금(冶金) : 위대한 지혜'를 개최한다.

10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2점, 현대미술 9점, 국가무형문화재 작품 5점 등 총 45점의 걸작을 선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대표적인 금속 유물을 중심으로 제작 기술이나 장식 기법 등에 치우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각 시대의 상징이자 위대한 지혜로서의 야금에 대해 조명한다. 더불어 야금에 깃든 지혜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예술의 영역에서 조각, 설치미술, 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한다.

'야금' 展은 장구한 한국미술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금속 미술의 세계를 고대부터 현재까지 야금이란 주제로 조명한다. '야금'은 불(火)로써 금속을 다루는 일을 통칭하는 말로 그 시작과 과정,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고대 청동기부터 금관 및 장신구, 강철 무기류, 불상 및 불교 공예품 등 수많은 문화유산에 우리의 우수한 야금 문화가 깃들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다양한 금속의 활용과 장식 기법은 각 시대 나름의 상징성을 담아내며 기술을 초월한 민족의 지혜로 전승되었다. 야금의 지혜는 과거에 멈추어 있지 않고 과학 및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했다. 예술의 분야에서도 전통을 계승한 장인들과 현대미술가들의 시대 성찰과 미감을 반영한 다채로운 작품으로 야금의 예술성을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시대를 초월해 혼과 정신으로 이어진 우리의 지혜를 품은 금속 미술의 정수들을 폭넓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반도체를 포함한 재료공학 및 제철 산업,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토대는 다름 아닌 고귀한 야금의 전통과 위대한 지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 중 3부 '부처 : 적멸의 빛과 해탈의 울림'에서는 은제아미타여래 삼존좌상(고려, 14세기, 은, 높이 19.3cm), 금동보살좌상(조선, 15세기, 금동, 높이 47cm), 철조여래좌상(고려, 10세기, 철, 높이 84.5cm), 금동보살좌상(조선, 15세기, 금동, 높이 46.7cm), 금동여래오존좌상(고려 말 조선 초, 14~15세기, 금동, 높이 9.8cm), 용두보당(국보, 고려, 10~11세기, 금동, 높이 104.3cm), 금동 풍탁(고려, 10세기, 금동, 높이 37.2cm), 선림원종(복원품, 원종 804년 주조, 청동, 한국전쟁 당시 파손), 금동 용두 토수(보물, 고려, 10세기, 금동, 30.5cm), 청동은입사 운룡문 향완(국보, 고려, 1229, 청동, 은입사), 청동은입사 봉향문 합(국보, 고려, 11~12세기, 청동은입사) 등 불교관련 유물이 전시된다.

은제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불상이 자리한 대좌와 뒤편의 광배 조각이 섬세하고 화려한 고려 말기의 작품이다. 중앙의 여래상과 양 옆의 협시보살의 보관, 목걸이, 자세 및 안면 표현이 전형적인 고려 말 14세기 양식을 갖추고 있다.

철조여래좌상은 고려 초기의 작품 중에서 통일신라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수작으로 철불 특유의 거친 표면과 어두운 색채는 강인함과 고된 수행의 여정을 자비롭게 품고 있는 부처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다.

용두보당은 실제 당의 미니어처로 당시 실내 봉안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도금과 칠로 아름답게 장식한 고려시대 공예품의 대표작 중 하나다. 고려 시대 유일하게 전해지는 당간의 미니어처로 당시 실제 석조 및 건축양식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작품으로 국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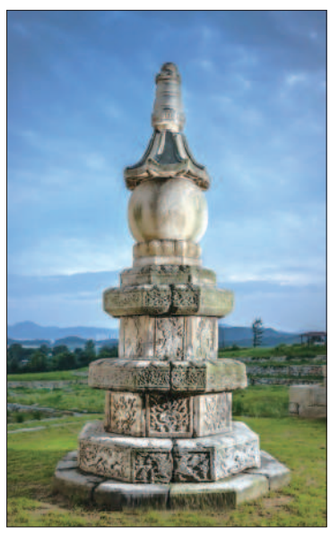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불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불교미술품이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특히 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된 불교 미술은 일반 미술품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에 그 시대의 최고 명작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삼국시대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 속엔 다름 아닌 야금의 지혜를 품은 우리 민족의 격조 있는 신앙과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출 콘크리트 공간에 쇠로 만든 파티션과 쇼케이스를 사용했으며, 360도 모든 방향에서 감상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연출을 선보인다.

관람은 무료이며, 호암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 2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시간당 100명, 하루 8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단체 예약은 잠정 중단하고 있다. (031-320-1801)

양주회암사지사리탑 보물승격 기념전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2022년 2월 20일까지



양주시립 회암사지박물관이 10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양주회암사지사리탑(사진, 이하 사리탑)의 보물 승격을 기념하는 특별전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을 개최한다.

2021년 6월 보물 제2130호로 승격 지정된 사리탑을 널리 알리고 사리탑이 지닌 보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나눠 사리탑의 이력과 현황, 보물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을 소개한다. 특히 5.89m에 달하는 사리탑의 생생한 모습을 실내 전시장에서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를 전시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으며, 우리나라에 소재한 여러 사리탑을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사리탑은 2021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30호로 승격 지정됐다. (031-8082-4171) 박재완 기자

국립해양문화재硏 '해저만발' 展

기획전시실, 2022년 5월 15일까지



태안선 청자 발우(세트).

태안 앞바다 침몰선에서 발견된 발우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는 내년 5월 15일까지 특별전 '해저만발(海底萬鉢), 바다에서 만난 발우'를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발우는 식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Pātra(파트라)'를 한자로 옮긴 '발다라(鉢多羅)'를 줄인 '발(鉢)'과 밥그릇을 의미하는 '우(盂)'가 합쳐진 단어로, 스님들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응기(應器), 응량기(應量器)라고도 하며, 바리, 바루, 바리때 등으로도 부른다. 이번 전시는 태안 대섬 바다에 잠겨있던 태안선에서 나온 청자 발우(이하 태안선 청자 발우)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태안선은 2007년 주꾸미가 청자접시를 끌어올려 알려진 고려 시대 청자 운반선으로, 발굴 당시 2만 3000여 점의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전시에서는 그 중에서 선별된 발우 138점을 선보인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는 태안선 청자 발우와의 만남을 계기로 발우가 가지는 의미, 태안선과 고려청자, 고려 시대 불교문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관사 수륙재, 불화로 만나다

은평역사한옥博 특별전
2022년 2월 27일까지



감로도,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불화로 진관사 수륙재를 조망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감로(甘露), 법의 비(法雨) 내리네' 展을 내년 2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진관사 수륙재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대표 의례로 예로부터 역병과 같은 재난이 돌 때에 널리 행해졌다. '감로, 법의 비 내리네'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틔워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원하며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조선 건국 이래 백성의 평안을 위해 봉행됐던 진관사 수륙재의 문화적 가치를 살피고 의식 불화의 예술성을 조망한다. 전시에는 조선시대 의식 불화로 18세기 '삼장보살도'와 '감로도'를 소개하고 어울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관사 국행수륙재의 역사와 '칠여래번' 등 실제 의식에 사용하는 불화들을 선보인다.

연계 행사로 기획된 '박물관-진관사 투어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신성민 기자

경자 신축년의 지구촌 코로나와
임인년 이후의 세기적 변화에 대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서의 처방 및
비밀한 가르침에 대한
놀라운 해설서 !!!



일곱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 미륵부처님이 왜 일곱단계를 거쳐서 오시는가?
–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명과, 법신불의 광명은 어떤차이가 있는가?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 선재동자가 삼아승지겁을 뛰어넘어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수많은 천상의 신계와 인간은 어떻게 소통하나?
– 법계가 바뀌어 광명천지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각 권 정가 20,000원 (이만원)

문의 010-3514-708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수리산 용화사
• 주 지 : 혜우 (속명 : 이영옥)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89-9 공평빌딩6층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佛儒 소통·문화재 환수…가을 학계 '풍성'

위드코로나 첫 발 활기 띤 불교학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제 강점기 당시 불법으로 반출돼 현재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오층석탑<사진 왼쪽>과 보물 하동 쌍계사 감로왕도<사진 오른쪽> 중 일부. 가을 불교학계가 이천오층석탑 환수와 사찰 미술 등 풍성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불교학계는 크게 위축됐다. 연구 발표의 장인 학술대회가 축소되거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드코로나' 정책이 첫 발을 내딛음에 따라 불교학 관련 학회들은 가을 학술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주제도 불교와 유교 소통부터 문화재 환수까지 다양하다.

불교 · 유교 어떻게 소통했나

성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소장 김도일)는 11월 26일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308호실에서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소통과 조화'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와 2부로 나눠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소통을 이뤘는지를 조명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1부에서는 △주희가 본 육구연의 심학과 선불교(정상봉, 건국대) △불교적 사유와 중국적 사유의 융합과 간격-불성과 인성 사이(석길암, 동국대 경주) △유자휘의 유불조화론과 대혜종고의 영향(이원석, 전남대) △육구연의 심학과 조사선(김진무, 원광대)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겸손의 유교적 그리고 불교적 색채(김도일, 성균관대) △장구성은 대혜종고에게 무엇을 배웠는가(이해임, 상산고) △현대 신유학에 나타난 유불융합의 방식들-웅십력, 당군의, 모종삼 3人의 철학을 중심으로(김제란, 고려대)가 발표된다.

성철사상연구원 이사장 원택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성철 스님 역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하며 한학을 익혔고, 법문에서도 왕양명을 비롯해 유학자의 가르침을 소개하며 유교와 불교를 아울렀다"면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소통과 조화의 전통을 되살려 화해와 공존의 시대정신을 찾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은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가 부재하다"며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소통과 조화의 전통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만연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수 있는 가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현장은 불광미디어 유튜브 채널(youtu.be/en-9eF7wKDs)에서 라이브로 중계된다.

문화재 환수 역량 '하나로'

일제 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1시 이천시청 대회실에서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높이 6.48m의 방형 석탑이다. 균형미가 뛰어난 이천의 대표적인 석조문화재로 이천향교 인근에 있었다. 하지만 문화재 수집광이자 일본의 실업가인 오쿠라 기하지로의 수중에 들어가 1918년 인천세관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됐고, 현재 도쿄 시내 오쿠라호텔 뒤뜰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수완 우석대 교수가 '이천의 불교문화재를 통해 본 이천오층석탑의 의미'를 발표한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이천오층석탑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있던 석탑들을 무더기로 경복궁으로 옮겨와 야외전시했던 역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수 이천향토사학자와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은 2008년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환수 운동 추진과정과 성과, 환수운동의 의의와 활동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김경민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서구의 문화재 약탈사와 반환문제를 통해 본 문화재 환수문제의 쟁점과 전망, 환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이상구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장은 "100년 전 일본에 빼앗긴 이천오층석탑이 이천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술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찰 회화 · 불교사상 조명도

쌍계사 불교 회화의 예술성을 탐미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 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11월 20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하동 쌍계사의 불교회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쌍계사 개산 1297주년 · 창건 118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쌍계사의 팔상도와 영산회상도, 삼장보살도 등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자로는 김정희(원광대), 고승희(동국대), 안희숙(한국미술사연구소), 유경희(국립중앙박물관), 문무왕(동명대)이 참여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권기현)가 12월 18일 오후 1시 부산 고심정사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불교사상 수용사를 살피는 자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려의 문수회와 그 사상적 배경(김종명, 금강대) △불학의 연기본체론에서 본 주자학의 심성론과 본체론적 사유(김연재, 공주대) △'수심결'에 나타난 대화법 분석을 통한 교육적 의의 연구(신희정, 한국교원대) △자리이타와 공감의 불교윤리-자비에서 공감으로(오현희, 동국대)가 발표된다.

고승 비문부터 매향비까지 '총망라'

국립문화재硏, 〈한국의 석비-고려〉 발간
고려 문화 담은 39기 석비 이미지 수록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석비의 학술정보와 이미지를 망라한 연구자료집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고려시대 석비 중 국보 · 보물로 지정된 39기의 학술정보자료를 수록한 〈한국의 석비-고려(국보 · 보물)〉를 발간했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금석문학술정보구축'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에는 〈한국의 석비-고대(국보 · 보물)〉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자료집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석비(石碑) 400여 기 가운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39기의 기본 정보와 석비의 주인공 소개, 형태와 가치, 고화질 사진과 탁본, 판독문, 해석문 등 학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했다. 휴대용 기기로 책자 내 QR코드를 인증하면 석비를 고화질 사진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자료집은 지역별로 나눠 강원 · 경기 · 경상 · 전라 · 충청의 총 5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장은 석비의 제작연대 순으로 배열했다. 책에 수록한 석비 대부분은 고려 시대 고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이고, 그 밖에 사찰을 건립하거나 중수할 때 그 과정을 기록한 사적비(事蹟碑), 유교의 윤리가 국가적으로 장려되면서 효자의 효행을 포상한 기록인 정려비(旌閭碑), 일반 백성의 소망을 담는 매향의식 때 세워진 매향비(埋香碑) 등에 대한 정보도 수록했다.

〈삼국유사〉의 저자로 유명한 일연 스님의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탑비 군위',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등도 포함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비는 예로부터 인물의 공적이나 중대한 사건 등을 오래도록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건립됐다"면서 "제작했던 당시의 고유한 문화와 기술을 담고 있는 역사의 증표다. 문헌으로 전해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들이 새겨지는 경우가 많아 고려인들의 문장, 글씨, 사회상 등을 가까이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제2회 탄허학술상 김성철 교수 선정

(사)한국불교학회, 12일 발표
불교인문학 발전에 공로 커
오는 19일 추계대회서 시상



제2회 탄허학술상 수상자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 한국불교학회 한암상 · 탄허학술상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올해 탄허학술상 수상자로 김성철 교수를 선정 · 발표했다.

운영위원회는 "김성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열정적인 강의와 깊이 있는 논저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불교인문학의 지형을 자연과학 분야와 접목시켜 가고 있으며, 한암상과 탄허학술상 제정에도 크게 공헌했다"고 수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시상식은 11월 19일 동국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Ⅲ'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불교사상 Ⅰ · Ⅱ'로 나눠 진행된다. 권기종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상의 내용과 특징'을 기조 강연하며, 한국 삼론 · 성실 · 섭론 · 유가 사상과 고려 · 조선의 선 · 화엄 · 정토 · 천태 등을 살피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한편, 탄허학술상은 한국 동양학계의 걸출한 학승이자 선승으로서 우리 사회에 화엄선풍을 널리 선양한 탄허 택성(1913~1983) 대종사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2

▶ 43회 예고
제관 라다굽따는 아쇼까의 동생 비가따쇼까 생일잔치에 참석해서 예전 같지 않은 빈두사라왕의 모습을 보고는 걱정한다. 그날밤 수상인 칼라따까 저택으로 찾아가 빈두사라왕 후임으로 아쇼까를 추대하기로 서로 합의한다.



담마팔, 꾸날라의 스승이 되다

빈두사라왕은 친위대장을 불러 별궁 접견실을 환하게 단장하라고 지시했다. 아반띠국에서 초빙한 담마팔 사문을 약재 냄새 나는 침소에서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두사라왕은 자신의 건강이 별궁 접견실에서 집무를 보아도 될 만큼 좋아졌다고 자신했다.

"대왕님,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대장은 지금 어서 접견실을 단장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친위대장은 정원을 담당하는 관리를 부르고, 궁녀들을 불러 접견실을 가능한 한 밝게 꾸미도록 지시했다. 궁녀들이 접견실 커튼을 산뜻한 빛깔의 비단 천으로 바꾸었다. 몇몇 잡인들은 묵은 집기들을 들어내고 바닥에 대걸레질을 했다. 또한, 별궁정원 하인들은 서너 사람이 들 수 있는 큰 화분들을 접견실로 옮겨왔다. 붉은 부겐빌리아 꽃, 하얀 플루메리아 꽃 화분 등이 접견실 창가에 놓였다. 플루메리아 꽃향기가 진동했다. 먼지가 부옇게 쌓였던 별궁 접견실이 오랜 만에 생기로 충만했다. 친위대장은 오래 된 탁자와 의자 등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궁중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전단향나무 집기들이 새로 들어왔다. 이른 아침에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를 조금 지나서 끝났다. 친위대장이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접견실 단장을 마쳤습니다."

"잘했소. 잠시 후 라다굽따 제관이 담마팔 사문을 안내해 올 것이오."

빈두사라왕은 담마팔 사문을 기다렸다. 왕자들의 스승을 삼고자 초대한 것이 명분이었지만 어제부터 빈두사라왕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다. 담마팔 사문이 전생과 금생, 내생을 꿰뚫어보는 천안통이 있다는 것을 라다굽따에게 듣고는 자신이 천수를 누리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병이 깊어져 변고를 당할지 궁금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친위대장을 대동하고 별궁 접견실로 나갔다. 빈두사라왕의 얼굴에 흡족한 표정이 번졌다. 칙칙했던 접견실이 확 바뀌어 있었다. 빈두사라왕은 플루메리아 꽃이 만개한 화분들을 보고서는 침소의 우울한 기분을 단박에 씻어버렸다.

때마침 담마팔 사문이 별궁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접견실로 올라왔다. 친위대장이 즉시 일어나 담마팔 사문을 안내하러 나갔다. 담마팔 사문은 라다굽따 대신을 뒤따라오고 있었다. 친위대장이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대왕님은 지금 별궁 접견실에 계십니다."

"건강은 어떠하시오?"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라다굽따와 담마팔 사문이 접견실로 들어서자 빈두사라왕이 일어나서 맞이했다.

"대왕님, 어제 말씀드렸던 아반띠국에서 오신 담마팔 사문입니다."

"오, 사문을 기다렸소."

라다굽따의 소개를 받은 담마팔 사문이 합장하며 말했다.

"소승이 왕자님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무슨 말씀이오. 사문께서는 전생과 금생, 내생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있다고 들었소."

"대왕이시여, 소승과 같은 사문은 많습니다."

"아니오. 나는 덕이 높은 사문을 많이 만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소. 일찍이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빠딸리뿌뜨라에 와 있었으나 그는 얼마 후 떠나버렸소."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만족해하자 안도했다. 궁녀들이 코코넛 음료수를 황금잔에 들고 왔다. 담마팔 사문을 위한 배려였다. 빈두사라왕이 말했다.

"내가 사문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소."

"대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나는 1년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소. 최근에 좀 나아졌지만 또 언제 재발될지 걱정이오. 과연 나는 천수를 누릴 수 있겠소, 없겠소?"

"소승은 대왕님을 뵌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소승이 대왕님의 천수를 어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담마팔 사문은 갑자기 자신의 천수를 묻는 빈두사라왕의 질문에 당황하여 둘러댔다. 그러자 빈두사라왕이 담마팔 사문을 뚫어지듯 쳐다보더니 말했다.

"천수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오? 그러니 사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사문의 허물이 아니오."

라다굽따도 빈두사라왕을 거들었다.

"대왕님의 말씀인즉 고비가 있다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 같소."

"라다굽따 제관의 말이 맞소. 지혜롭게 고비를 대처한다면 피할 수도 있지 않겠소. 지금까지는 궁중의원들이 힘을 써 여기까지 온 것 같으나 사람의 정성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명의라고 하더라도 하늘이 막으면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할 수 있듯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마팔 사문은 빈두사라왕이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칼에 피를 묻히곤 했던 악행의 응보라고 생각했다. 응보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만 씻어지는 법이었다. 빈두사라왕이 작년부터 병고에 시달리는 것은 응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담마팔 사문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더 이상의 병고는 없습니다. 다만 10년 뒤에 한 번의 큰 고비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치러야 할 변고라면 받아들이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빈두사라왕이 담마팔 사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당장 더 이상의 병고가 없다는 말에 두 팔을 벌리며 큰소리로 말했다.

"사문이여, 고맙소. 나는 당장 궁궐로 돌아갈 것이오.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을 위해 예전처럼 다시 힘쓸 것이오. 앞으로 10년을 다진다면 100년의 평화가 있지 않겠소? 사문에게는 왕자를 정할 특권을 주겠소. 원하는 왕자의 스승이 되시오."



빈두사라왕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기를 두 번이나 반복했다. 라다굽따가 눈치를 채고 일어났다.

"대왕이시여, 소신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궁궐에서 대신회의를 하겠소. 일찍 나오시오."

라다굽따는 접견실을 나와 도리질을 했다. 담마팔 사문과 별궁 정원을 가로지르며 조금 전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큰 사건을 목격한 것 같은 충격에 휩싸여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강가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라다굽따의 목덜미를 스쳤다. 라다굽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사문이시여, 대왕님의 10년 뒤 큰 고비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변고를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담마팔 사문은 입을 다물었다. 큰 고비란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문제였지만 차마 그 말은 꺼낼 수는 없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대왕님은 앞으로의 10년에 안도하시지만 나는 대왕님의 10년 후가 불안합니다."

"라다굽따시여, 10년 후는 10년 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소승에게 지금의 문제는 어느 왕자님을 가르칠 것인가, 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아쇼까 부왕님의 어머니 다르마 왕비를 뵈러 가야 합니다. 아쇼까 부왕님께서 사문과 함께 다르마 왕비를 찾아뵈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왕님의 어머니라면 소승도 뵙고 싶습니다."

라다굽따는 내성에 있는 자신의 저택으로 갔고, 담마팔 사문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절로 돌아갔다. 강가강의 갈매기 몇 마리가 내성 안까지 날아왔다가는 싱겁게 사라졌다. 조그만 절 앞 삡빨라나무 그늘에는 어제와 같이 수행자 몇 사람이 좌선하고 있었다. 수행자들은 삡빨라나무 가지에 앉아 우짖는 작은 새들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음날. 라다굽따와 담마팔 사문은 다르마 왕비 별궁을 찾았다. 다르마 왕비는 담마팔 사문에게 비밀스런 이야기라도 들으려는 듯이 아상디밋따와 락슈미띳사를 접견실로 부르지 않았다. 이윽고 다르마 왕비는 담마팔 사문을 보자마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왕비님, 담마팔 사문입니다."

"오, 너무 닮았어요.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걸어오신 줄 알았어요."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은 한때 아쇼까 부왕님의 스승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어린 아쇼까의 스승이었지요. 참으로 자애로운 분이었지요. 사문이 빠딸리뿌뜨라를 떠날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같은 사문이 내 앞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담마팔 사문이 다르마 왕비에게 다시 한 번 합장한 뒤 말했다.

"왕비님이시여, 희유한 일입니다."

"오, 목소리도 같아요."

담마팔 사문은 다르마 왕비의 말을 믿었다. 아쇼까 부왕을 만났을 때도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이다. 아쇼까 부왕이 자신의 어린 시절 스승 목갈리뿟다띳사 사문과 닮았다고 호감을 보이면서 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다르마 왕비가 아상디밋따를 불러 꾸날라를 데리고 오게 했다. 그리고 락슈미띳사에게는 갓난아기인 비가따쇼까를 안고 오라고 했다. 다르마 왕비가 꾸날라와 비가따쇼까를 오게 한 것은 담마팔 사문에게 스승이 돼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아쇼까 부왕의 동생인 비가따쇼까는 아직 강보에 싸인 갓난아기였다. 비가따쇼까는 잠을 자는지 쌕쌕 숨소리를 냈다. 다르마 왕비가 꾸날라에게 말했다.

"꾸날라야, 우리를 위해 먼 나라에서 오신 사문이시다. 인사 드려라."

"할머니, 이분이 저에게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쳐 줄 분이세요?"

"그건 모르지. 대왕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니까."

"제가 대왕님께 허락을 맡아오겠어요. 이분이라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다굽따가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왕님께서는 담마팔 사문께 왕자님이든 왕손님이든 선택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부탁했다.

"꾸날라의 스승이 돼주세요."

담마팔 사문이 두 손을 이마까지 올려 합장했다. 꾸날라 스승이 되겠다는 허락의 합장이었다.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은 아쇼까 부왕님의 스승이었고,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을 닮은 담마팔 사문께서는 꾸날라 왕손님의 스승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순리라기보다는 인연이겠지요."

담마팔 사문은 '인연'이라는 말로 다르마 왕비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다르마 왕비 별궁 접견실에 모처럼 웃음이 오갔다. 분위기가 내내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라다굽따는 담마팔 사문이 빈두사라왕에게 한 말이 문득 떠올라 웃을 수만은 없었다. 라다굽따는 다르마 왕비와 헤어지면서 중얼거렸다.

'10년 후 빈두사라 대왕님께 큰 변고가 생긴다면 아쇼까 부왕님이 달려와서 수습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다굽따는 아쇼까 부왕이 탁실라와 웃자인의 반란을 후유증 없이 진압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하늘에 기도하고 제사를 주관한 궁중제관으로서의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비록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칼라따까도 전적으로 동의할 터였다. 칼라따까는 빈두사라왕이 총애하는 수시마를 저주했기 때문이었다. 어린 수시마에게 뺨을 맞은 수모를 친한 대신들에게 두고두고 토로해 왔던 것이다.〈계속〉

군/계/일/학 ... 한국법당
들의 마이크를 20여 년 살펴본 결과 ...

1. 시주마이크 2. 업자들의 시설마이크 3. 스님 직접 구한 낙원동마이크 들로 성능들이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들 합니다. 이때! 본사의 **군계일학** 마이크로 스님께서 염불을 해보시는 순간 ! 구성지고 신명나는 소리에 살짝 놀라시며 자신의 염불에 취해 한참을 염불을 길게 하십니다. 이때! 총무실,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소리 같은데? 아니! 테프소리 같은데? 하며 확인 차 법당으로 몰려 옵니다. 이때! 염불을 마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허어!.. **군계일학** 이 따로 없군...의 말씀따라 **군계일학** 마이크로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 본품은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구매하지 않고 오직!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불렀을 때 그 동네 사찰 여럿을 모아 방문시 오직! 소리만 확인 해드린 후 바람같이 사라짐으로 부담이 전혀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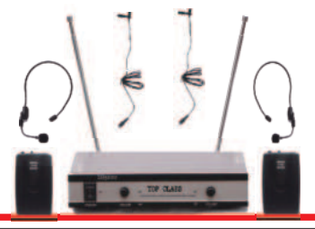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가격 ₩89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8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성묵스님의 漢文/한글(겸용)종합의식집 한권으로 7가지의 염불을 할수있는 ⑨권과 ⑨-1번, ⑨-2번으로 분류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두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십구재 입재 → 사십구재 → 일반 천도재 → 생축불공 → 한문염불 → 한글염불 → 경전공부까지 해결됩니다.



신권소개 ⑨번, ⑨-1번, ⑨-2번
⑨ 漢文/한글(겸용) 종합의식집 (50,000원)
⑨-1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⑨-2 漢文/한글(겸용) 의식집 (25,000원)
☜ 한권의 경전으로

성묵스님의 스테디셀러 소개 (스프링 제본)

① 漢文/한글(겸용) 예경/각청 (20,000원)
② 漢文/한글(겸용) 천도/시식 (20,000원)
③ 漢文/한글(겸용) 수계/방생 (20,000원)
④ 漢文/한글(겸용) 장 의 (20,000원)
⑤ 漢文 점 안 (20,000원)
⑥ 漢文/한글(겸용) 독 송 집 (20,000원)
⑦ 漢文/한글(겸용) 토속 모음 (20,000원)
⑧ 漢文/한글(겸용) 지 장 경 (20,000원)

구 입 처 총무보살 010-7144-7339 · 성묵스님 010-5277-8024
계좌번호 농협 735091-52-058288 (예금주 : 박명덕)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21 깨달음, 중도삼매의 체득



▶ 한줄 요약
매순간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과 분별망상을 비우면 삼매 속 지혜가 솟아난다.

양변 여의는 중도로 삼매 들자

불자라면 누구나 '삼매(三昧)'란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삼매란 무엇일까? 불자가 아니더라도 삼매란 말은 친숙하다. '독서 삼매', '게임 삼매' 같이 무엇인가 몰두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삼매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 삼매에 대하여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삼매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자라면 삼매에 대하여 바른 공부를 하여 정견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도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삼매를 체험하면 지혜롭고 평화로운 삼매의 마음을 계발할 수 있다. 선(禪)에서는 누구나 본래 삼매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본다.



불교 삼매는 오직 체험의 세계이니 말과 문자의 이해로는 영원히 알 수가 없다.

삼매란 무엇인가?

선의 종전 〈육조단경〉에는 '일행삼매'라는 말이 있다. 6조 혜능대사가 법문에서 근본으로 삼은 '정혜(定慧)' 편에 나온다.

"일행삼매(一行三昧)란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항상 곧은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아첨하고 비뚤어지게 행하며, 입으로는 법이 곧음을 말하지 말라. 다만 곧은 마음으로 행하며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일행삼매라 한다."

혜능 대사는 당신의 돈오 법문은 '정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하면서 '정과 혜를 다르다 하지 말라' 하고는 '일행삼매'를 말한다. 혜능대사가 말하는 일행삼매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항상 양변을 떠나 바른 마음으로 행함을 말한다.

우리 마음에서 나다-너다, 옳다-그러다 하는 양변을 떠난 자리를 정(定, 사마타)이라 하고 그 양변 여읜 정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을 혜(慧, 위빠사나)라 한다. 이 정혜는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인데 부처님은 이것을 깨달아 생사윤회를 해탈하였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본래 마음은 정혜로 되어 있는데, 중생은 정혜로 된 본래 마음을 모르고 나다-너다, 옳다-그르다 하는 양변에 집착하여 머물러 생사 윤회하며 괴로움을 받고 사는 것이다.

깨어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은 정혜 즉 삼매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행주좌와에 늘 양변을 여의고 바른 마음을 행한다. 깨달음은 곧 수행을 통해 삼매를 증득하는 것이다. 선(禪)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이 깨달아져 있고, 본래 삼매로 되어 있다고 한다.

불교의 삼매(三昧)는 산스크리트어 'Samādhi'(사마디)를 음사하여 삼매(三昧) 또는 '삼마지(三摩地)'라 했다. 번역은 '정(定)'이라고도 하고, 지관(止觀) 또는 정혜(定慧)가 가지런히 지녔다고 등지(等持)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깨달아 일체 번뇌망상을 여의고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한 적멸(寂滅)의 마음을 말한다. 깨치면 삼매가 완전한 것이다.

부처님 이래로 모든 조사, 아라한들은 모두 깨달음으로 삼매를 성취한 이들이다. 우리도 깨달아 삼매를 성취하면 생사고해를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와 행복을 누린다.

불교 삼매와 독서 삼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서 삼매' '게임 삼매'라는 말도 있으니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와 같은 것일까? 보통 독서삼매에 빠졌다고 할 때, 고도의 정신집중으로 매우 고요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독서와 게임, 도박 같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몰입한다. 이것도 불교 삼매와 같은 것인가?

만약 도박과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 삼매라면 깨달음도 도박과 게임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깨달음은 중도, 무아를 깨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있고, 내가 도박, 게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몰입함은 나-너, 이기고 지는 승부심으로 하는 것이니 여전히 상대 분별의 양변에서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몰입의 즐거움은 있을지라도 적멸의 깨달음 삼매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부처님은 도박 같은 중독된 행위는 금하셨다.

독서 삼매도 마찬가지다. 책을 보는 행위에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에 빠진다. 하지만, 책을 볼 때는 책이라는 대상과 책을 보는 주체, 즉 주와 객의 상대 분별에서 문자와 사유를 통해서 몰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니, 주객합일, 중도, 무아의 삼매와는 역시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불교의 깨달음 삼매는 양변을 여의는

독서와 게임 몰입과 삼매 달라
주체 두는 몰입은 분별의 단계
분별 망상 비워야 지혜 솟아나

중도를 깨치는 것이니 말과 문자를 통한 사유 작용이 있는 한 옳고-그름, 주관과 객관이 벌어진 상대 분별심이 작동하여 중도를 깨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와 게임, 도박 삼매는 상대적인 몰입의 즐거움은 느낄 수 있지만, 중도, 무아의 깨달음 삼매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교 삼매는 중도삼매

우리 불자들은 불교를 공부할 때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을 만나면 항상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부처님이 깨친 뒤 첫 설법이 중도대선언이었다. 이어서 중도가 곧 팔정도라 하였다.

팔정도의 정견은 중도로 보는 견해를 말한다. 중도 정견은 부처님의 안목이다. 불교 삼매란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인 중도를 말한다. 불교 삼매는 곧 중도 삼매이다.

그러므로 불교 삼매는 중도 정견과 다르지 않다. 불교 삼매란 마음에 양변을 여의고 지혜가 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중도 삼매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6조 혜능대사는 정혜등지라 하였고, 남방 상좌부불교에서는 사마타 위빠사나(止觀)이라 하며, 화엄종에서는 적광(寂光), 천태종에서는 쌍차쌍조(雙遮雙照), 임제종에서는 살활(殺活)이라 한다. 이름만 다르지 모두 부처님이 깨친 중도 삼매를 각 종문의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화두를 참구하여 번뇌망상을 비워 깨달음으로 가는 간화선에서는 중도 삼매를 성성적적(惺惺寂寂) 삼매라 한다. 성성적적이란 화두가 또렷또렷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져 고요한 적적이 되는 마음 상태이다. 우리 마음에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의심하는 것을 성성(惺惺, 위빠사나)라 하고 화두가 성성하면 번뇌가 사라져 고요한 적적(寂寂, 사마타)이 되는 것이다. 화두가 일념이 되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면 삼매에 들어 지혜와 평안의 마음이 계발된다. 이것은 체험의 세계라 아무리 좋다고 말해줘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오직 할 뿐이다.

간화선이나 위빠사나나 염불, 주력, 간경 등 모든 불교 수행은 중도 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이다. 화두를 참구하든 호흡을 관하든 부처님 이름을 부르든 방법은 달라도 중도 삼매를 닦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

선에서 정혜쌍수가 아닌 정혜불이라 하는 이유?

6조 혜능대사는 〈육조단경〉 정혜품에서 "이 법문은 정과 혜로써 근본을 삼는다. 반드시 미혹하여 정과 혜가 다르다고 하지 말라. 정과 혜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定慧不二)" 라고 하였으니, 조사선에서 깨친 마음이 정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정과 혜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말하였다. 정과 혜를 둘로 보고 선정과 지혜 둘 다 닦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정혜쌍수이다.

하지만, 이 정혜쌍수는 혜능대사의 정과 혜가 하나라는 정혜불이, 정혜등지의 입장에서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정견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견해이다. 정과 혜를 둘로 보고 같이 닦아야 한다는 말은 정과 혜를 둘로 보는 양변에 떨어진 견해이다. 중도 정견으로 볼 때 양변을 여읜 자리가 정이고 그 정에서 혜가 나는 것이 중도 삼매이니 정혜쌍수라 함은 정과 혜를 둘로 보는 양변에 떨어진 입장이다.

그러므로 양변을 여읜 중도 삼매의 성취를 불교의 깨달음이라 볼 때 정혜쌍수의 견해는 깨달음이라 할 수 없고, 깨달음을 향하는 방편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정혜쌍수는 법, 달의 입장이 아니라 방편, 손가락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선은 오직 깨달음, 중도, 삼매, 정혜불이의 입장이니 정혜쌍수라 함은 선이 아닌 교학이나 남방상좌부불교의 위빠사나의 견해와 상통하는 견해이다.

위빠사나 수행자들의 주장을 보면, 사마타를 먼저 닦아 위빠사나로 완성한다고 하니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둘로 보고 하나로 완성시켜 가는 입장이다. 즉, 중생과 부처를 나눠서 중생에서 세세생생 점점 닦아 가서 수다원 · 사다 · 아나한 · 아라한과를 성취하는 점수법, 차제법을 말한다. 이런 수행관을 점수돈오(漸修頓悟)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위빠사나 수행자들은 돈오를 부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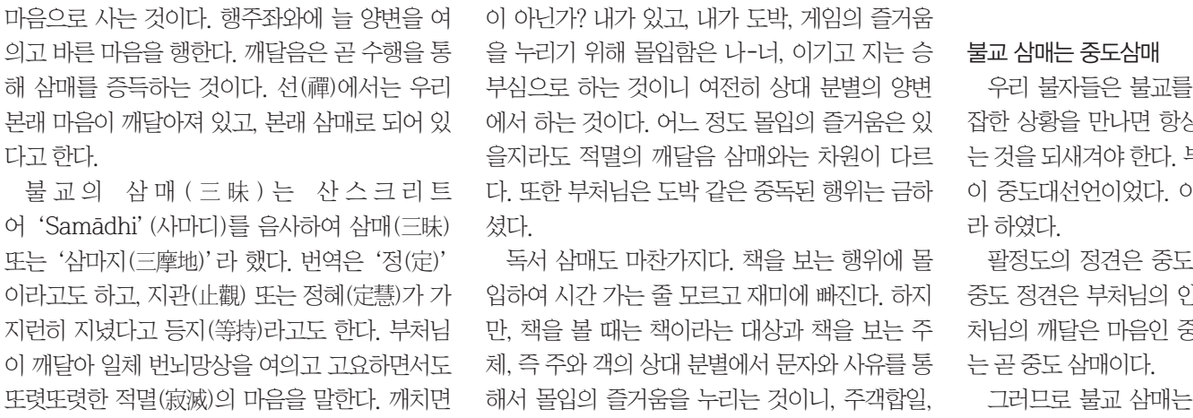
삼매의 즐거움, 열반, 적멸의 즐거움

정혜쌍수와 사마타를 닦아서 선정의 힘을 키운 뒤 위빠사나를 닦아 깨달아 삼매를 완성한다는 입장과 달리 禪에서는 중생이 본래부처라 보고 중생의 본래 마음도 부처님처럼 삼매로 되어 있다고 본다. 禪에서 삼매는 누구나 완성되어 있지만, 스스로 중생이라 착각하여 분별망상에 가로막혀 사는 이들은 본래 가지고 있는 삼매의 지혜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있고,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과 분별망상만 비우면 된다.

일체의 번뇌망상을 없애어 깨치게 되면 부처님처럼 열반 삼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적멸의 즐거움이다. 깨달아 삼매를 성취하면 생로병사의 4고(苦)에서 벗어나며 8풍(風)에도 자유자재하다. 불교 삼매는 오직 체험의 세계이니 말과 문자의 이해로는 영원히 알 수가 없다. 금강산 그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직접 가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불교인재원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강 원 도 019-396-1110
· 충 청 도 010-6545-3350 · 경 상 도 010-4187-0062
·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자평 명리학의 통변 기법이다
사주보는 방법론
화제의 신간
통변의 핵심을 찾아라.
운명의 운명인 법칙을 발견하리라!
이번에 내 놓은 "사주보는 방법론"은 실전에서 긴 세월 얻어진 경험과 선배 제현(先輩諸賢)들의 소중한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무엇보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많은 실전 자료로서 폭 넓은 통변에 대한 핵심의미를 살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사주를 보는데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알기 쉽게 요점을 간추려 보았다. 특히 십신과 육친 관계에서 고정화된 통변에서 벗어나 사주의 본의를 살려보려고 한 취지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송월 스님 述 / 신국판 / 408쪽 / 정가 35,000원

송월스님의 완결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6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6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김성진 지음 / 신국양장본 / 정가 45,000원
사주풀이의 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慧源 羅明祺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21 조선대장경의 백미



▶ 한줄요약
〈석보상절〉 제6권은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중 백미인 '녹원전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확하게 상두산 설법부터 〈반야경〉을 50세부터 21년 동안 설법하는 71세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부처님, 상두산서 설법하다


그림 · 강병호

드디어 '봄부터 가슴조이며 기다리던 내 누님 같은' 〈석보상절〉 제6권을 읽는다. 사실 연재는 〈석보상절〉 제3권보다 6권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3권을 연재하면서 그동안 중간본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팔상도의 내용에 충실하고 현전하는 첫 번째 책이라는 가치를 넘어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 석가모니의 출생과 출가 그리고 고행에 충실한 서사인지 새삼 알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석보상절 제4권이 전하지 않아 남아있는 〈월인석보〉 제4권을 읽어보았다. 우리의 예상대로 팔상도 중 여섯 번째 '수하항마'의 내용으로 이어져 있었다. 글의 순서대로 하자면 〈월인석보〉 제4권을 읽어도 좋겠지만 이 연재가 '석보상절 이야기'이니만큼 〈석보상절〉의 재미와 의미를 배가시키는 6권을 이어서 시작하기로 한다. 6권은 팔상도 중 일곱 번째 '녹원전법'에 해당하는 석가모니 일대기의 백미이다. '녹야원에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다'라는 뜻이지만 6권에서는 정각을 이룬 후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경전 설법과 중생을 교화시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 또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600년 전 조선시대 구어체의 향연을 체감할 수 있는 명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확인해 보기로 하자.

〈석보상절〉 제 4권은 현재 失傳
제6권, 팔상도 녹원전법에 해당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의 백미
조선代 구어체 향연 체감 '명저'

세존의 상두산 설법

석보상절 제 육

세존이 상두산(象頭山)에 가셔서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신 것이 부처의 나이가 서른 둘이시니 주나라 목왕 6년 을유이다.

이제 정각을 이룬 세존께서 녹야원 전법을 마치고 다시 부다가야로 돌아와 가야산이라 일컫는 상두산의 설법부터 시작하고 있다. 더 이상 3권의 호칭 '태자'이거나 '보살'로 부르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상두산(象頭山)은 보드가야 서북쪽 나이란자라강 우루벨라 가까이에 있는 산 이름이다. 가야산(伽耶山)이라고 하는데 빨리어로 'Gayasfa', 산스크리트로는 'Gajasirṣa', 또는 'Gayasirṣa'이다. '갈사시리사(翔闍尸利沙)'라고도 하는데 상두산은 코끼리(Gaja)의 머리를 의역한 것이고 가야산이라고 음역하기도 한다.

상두산은 당시 마가다국 최대 교단인 우루벨라 가섭 3형제 천명의 교단이 있었는데 불을 숭배하는 외도들이었던 그들을 불교로 교화하였다고 한다. 그곳에서 석가모니는 그들 교화 뒤에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였다고 6권은 시작한다. 깨달은 지 4년이 된 해였다고 '법원주림'은 기록하고 있다. 〈석보상절〉 6권은 상두산 설법부터 〈반야경〉을 50세부터 21년 동안 설법하는 71세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용은 〈불조통기〉에서 용왕으로 기록되고 있다.(六年乙酉 佛在象頭山 爲龍王鬼神說法 〈佛祖統紀〉권3) '천룡팔부' 중에서 가장 위력이 뛰어나고 산스크리트로 'nāga'라고 하는데 바다 속에 살며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고 광명을 발하여 천지를 비춘다.

귀신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악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불법(佛法)을 보호하는 대범천왕 · 33천왕 · 4천왕 · 염마왕이나 팔부신중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가 부처의 나이 서른 둘이라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29세 출가 · 6년 고행 · 35세 성도와는 좀 다른 버전의 경전을 저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후라의 출가 프로젝트

부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비라국에 가서 아버님 정반왕과 아주머님 대애도, 숙부님께 다 안부를 전하여라. 또 나의 아내 야수다라를 달래어 자식에 대한 애착을 그치고 라후라를 놓아 보내 상좌가 되게 하여라. 라후라가 득도하여 돌아가서 어머니를 제도해 열반 얻음을 나와 같게 하리라."

아주머님은 대애도(大愛道)를 말씀하는 것이니 대애도가 마야부인의 언니이다. 모습이 마야부인만 못하므로 둘째 부인이 되셨다.

처음 〈석보상절〉 6권을 읽었던 20대에는 불교에 문외한이고 젊었을 때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애도가 얼굴이 마야부인보다 못 생겨서 둘째 부인이 되었다는 말이 충격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이레째부터 자신을 키운 이모이자 어머니를 '아주머님'이라 부르는 것도 마뜩치 않았다.

한편 3권에서 싯달타 태자는 야수다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여러 훤훤 장부들과 겨루고 어렵게 결혼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맞이한 부인 야수다라를 훌쩍 떠나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은 후 이제 어린 아들마저 데려 오라고 하니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러한 과정을 묘사한 대화체 말투이다. 한문 원전도 있지만 한문 문장을 이렇게 유려하게 조선시대 말투로 바꾸어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자유자재로 쓰다니 읽을수록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

첫 시작이니 한문 원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은 〈경률이상〉이 간략하여 〈석보상절〉과 가깝고 〈석가보〉는 좀더 자세하다. 여기서 〈석보상절〉의 '아주머님'을 원전에서는 '이모'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석가보〉에서는 '나의 이모파사파제'라고 기록하고 있어 두 책을 보아야 석보상절 협주의 '대애도(파사파제)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佛告目連。汝往迦毘羅城。問訊我父母我叔及我夷母。慰喻羅睺羅母。令割恩愛。放羅睺羅使作沙彌。母子恩愛歡樂須臾。死墮地獄各不相知。羅睺得道當還渡母。永絕生死如我今也。〈經律異相卷第七〉

爾時世尊告目犍連。汝今往彼迦毘羅城。問訊我父閱頭檀王。并我姨母波闍波提。及三叔父斛飯王等。因復慰喻羅睺羅母。耶輸陀羅令割恩愛。放羅睺羅令作沙彌。修習聖道。〈釋迦譜卷第七 釋迦子羅云出家緣記第十三〉

목련의 신통력

목련이 그 말 듣고 즉시 입정해 폈던 팔을 굽힐 잠깐 사이에 가비라국에 가서 정반왕께 안부를 사뢰었다.

야수께서 부처의 사자(使者)가 왔다고 들으시고 청의(靑衣)를 시켜 기별(소식)을 알아 오라 하셨다. 사자는 심부름 보낸 사람이다.

청의가 라후라 데려다가 사미를 삼으려 한다고 하였다. 사미는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세간의 뜻을 접고 자비의 행적을 한다고 하는 뜻이다. 처음 불법(佛法)에 들어가 세속의 뜻이 많은 까닭에 모진 뜻을 그치고 자비의 행적을 닦아야 하므로 사미라 한다.

야수께서 그 기별 들으시고 라후라와 더불어 높은 다락 위에 오르시고 문들을 굳게 잠궈 두셨다.

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몸짓과 표정 그리고 감정의 서사가 어떠한가. 이것이 600년 된 낡고 오래된 표현으로 느껴지는가. 야수다라는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다. 남편이자 이제 부처가 된 석가모니의 수제자 목련이 가비라국에 나타났다. 남편의 안부도 궁금하지만 무슨 일로 왔는지가 더욱 궁금하다. 어쩌면 야수다라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출가한지 6년동안 갖은 고초를 겪고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라후라를 데려가려고 왔다는 것이다. 얼른 라후라를 데리고 목련이 찾지 못할 높은 누각으로 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아들을 보호한다. 결코 아들마저 뺏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어머니의 결기가 보인다.

신통 제일 목련의 '폈던 팔을 굽힐 사이에'라는 표현이 재미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표현인 것일까. 〈월인천강지곡〉은 138장부터 시작한다.

일백삼십팔장

세존이 목련이를 보내시어 야수다라께 기별하여 라운이를 꼭 보내라

목련이 오는 줄 야수다라께서 들으시므로 라운이를 깊이 감추시니〈월인50b〉

목련과 야수다라의 기싸움

목련이 야수의 궁궐에 가 보니 문을 다 잠그고 소식 들을 사람도 없었다. 즉시 신통력으로 다락 위에 올라가 야수 앞에 섰더니 야수께서 보시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며 마지 못해 일어나 절하시고 '앉으십시오' 하시고 세존의 안부 물으시고 말씀하셨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련이 말씀드렸다.

"태자 라후라의 나이가 이미 아홉 살이므로 출가시켜 성인의 도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함은 짧은 동안이거니와 하루아침에 목숨을 마치고 모진 길에 떨어지면 은애(恩愛)를 멀리 여의고 어지럽고 아득하여 어미도 아들을 모르고 아들도 어미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라후라가 도리를 얻어서 돌아와 어머님을 제도하여 네 가지 수고(受苦)를 여의고 열반을 얻게 되기를 부처같으시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수고는 생로병사이다.

母子恩愛。歡樂須臾。死墮地獄。母之與子各不相知。窈窈冥冥永相離別。受苦萬端後悔無及。羅睺得道當還度母。永絕生老病死根本。得至羅漢如我今也。〈釋迦譜卷第七 釋迦子羅云出家緣記第十三〉

그야말로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지금 당장 21세기 사극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없는 명문장들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목련과 야수다라의 긴장감 도는 이 대화는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부처의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이 제일이라는 목련이 야수다라의 논리정연하고 카리스마 있는 반박에 속절없이 지고 마는 유려한 대화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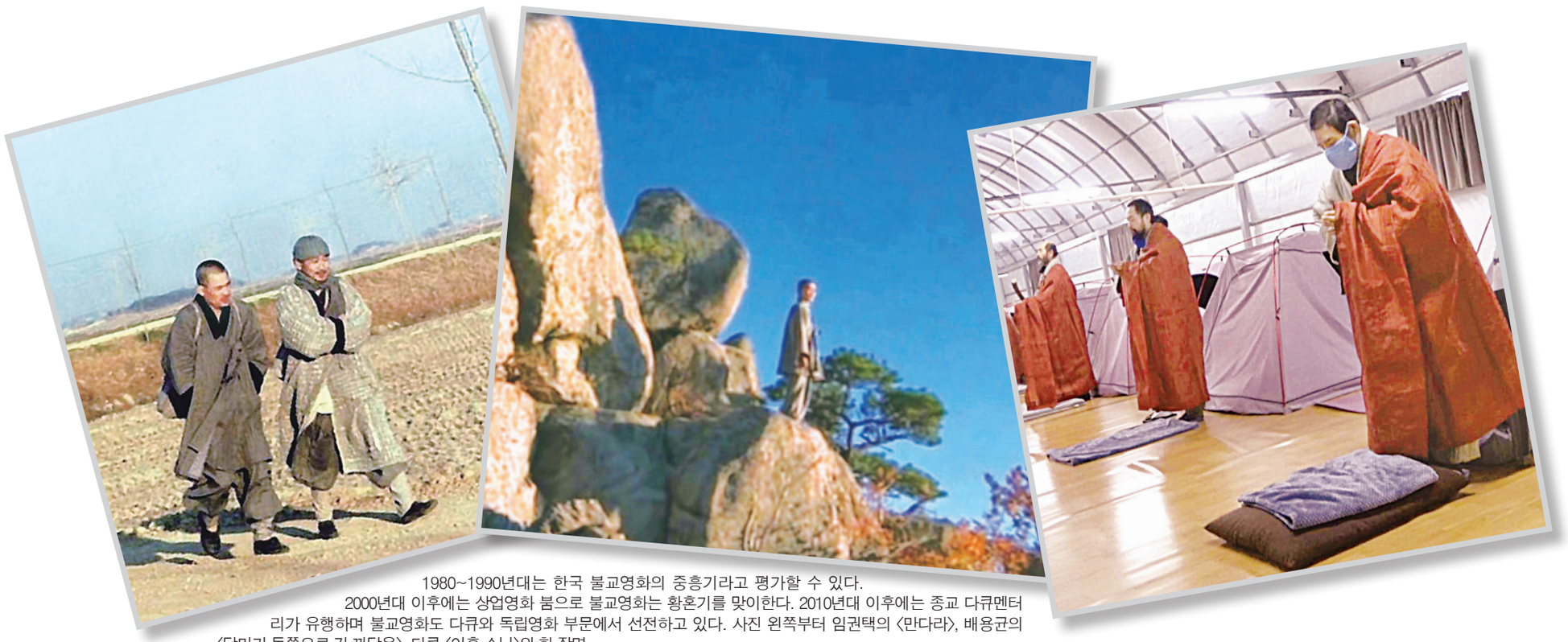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다시보는

불모지

❻ 한국불교영화 1980~2020



1980~1990년대는 한국 불교영화의 중흥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상업영화 붐으로 불교영화는 황혼기를 맞이한다. 2010년대 이후에는 종교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며 불교영화도 다큐와 독립영화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권택의 〈만다라〉, 배용균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다큐 〈아홉 스님〉의 한 장면.

韓영화 이끈 불교영화, 다시 '기지개'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의 신성민입니다.

지난번에는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불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불교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韓불교영화의 르네상스

1980년대는 불교영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영화를 통해 임권택 감독이라는 거장이 탄생했고,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담보한 영화 작품이 잇달아 제작됐습니다.

불교영화가 대종상 · 영평상 등 국내 영화상은 물론 해외영화제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이는 문학에서 구도소설이 인기를 끌며, 영화로 확장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아제아제바라아제(1989)〉,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김양득 감독의 〈우담바라(1989)〉입니다.

〈만다라〉는 김성동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본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영화 속 열린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10.27법난 이후 황폐해진 한국불교의 만성적인 무력감으로부터 하나의 위안과 각성을 암시해준 작품"이라며 "승속 갈등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죠.

〈아제아제바라아제〉는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이 작품은 순녀(강수연 분)라는 속퇴한 비구니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기능을 살피고 있는 수작입니다. 이 영화로 임권택은 불교영화 감독으로 면목을 확고히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불교영화 중 가장 베스트로 뽑는 작품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실제 이 작품은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죠.

정작 배용균 감독 본인은 불교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적 소재를 삼고 있고 그 안에는 선적 사유체계가 수준 높은 영상 이미지로 함축돼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영화는 점차 축소됐지만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 영화들의 명맥은 이어갔습니다.

1980 · 90년대 들어 韓불교영화 중흥기 도래
임권택 등 거장 탄생…구도소설 잇단 영화화
2000년대 상업영화 안착하며 불교영화 쇠퇴
종교 다큐 영화 유행…독립 · 다큐서 '재도약'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불교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혹은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1990년대입니다.

이 시기 불교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1993)〉, 양윤호 감독의 〈유리(1996)〉 등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는 비구승 심해와 비구니 묘연의 이야기로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 번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불교 영화지만 금지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화엄경〉은 고은 시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장선우 감독이 영화적 문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리〉는 박상륭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작가주의적인 착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 전형을 창조하려 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았죠.

상업 영화 유행, 불교영화 황혼기

2000년대 불교영화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국의 영화계가 오락 영화로 노선을 완전히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 불교는 더 이상은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게 됐죠. 그런 와중에도 몇몇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지산 스님의 삶과 의지를 통해 고려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불교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불교와 상업영화가 성공적으로 만난 작품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 장르가 만나 '불법(不法)을 불법(佛法)으로 교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흥행에도 성공해 서울 관객 125만, 전국 377만 관객 동원으로 2001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속편인 〈달마야 서울가자〉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2003년 김기덕 감독이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을 제작해 발표했는데요. 처음에는 불교영화로 소개됐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외피만 불교고, 그 안에 코드는 기독교라는 평론들이 잇달아 나왔죠. 제가 보기에도 불교영화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분야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면서 불교영화는 독립 · 다큐 영화 부문에서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습니다.

2010년 개봉한 윤용진 감독의 〈할〉은 보육원에서 형제같이 자라나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이기는 하나 너무 파편적이고 난해해 관객들의 평은 호불호가 나뉘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제작 · 발표된 〈법정 스님의 의자(2011, 임상구 감독)〉는 어린 시절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모든 일생이 담긴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이창재 감독의 〈길 위에서〉가 개봉했죠. 불교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었던 작품으로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잔잔한 영상으로 그려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 천막 동안거 정진을 한 아홉 스님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홉 스님〉은 지난해에 개봉했죠.

아홉 스님의 치열한 정진에 대한 영상 기록과 참여 스님들의 인터뷰를 담아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인연 따라 중생 대하는 관세음보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㊷ 관세음보살의 응신

"무진의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하사 모래알 수만큼의 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와구, 약품 등을 공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선남자 · 선여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는가?"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겁을 지난다 해도 다하는 일이 없으리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처럼 한량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 다니며, 어떻게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관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제석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제석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대자재천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천대장군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란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느니라.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겐 곧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장자나 거사나 관리나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겐 곧 그러한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소년, 소녀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게는 곧 소년, 소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들에겐 모두 그러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주며, 집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는 곧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무진의여, 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모습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마하살이 두렵고 위급한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두려움이 없는 무외(無畏)를 주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불러 두려움이 없도록 베푸는 이라 하느니라."

무진의보살에게 관세음보살의 응신에 대하여 부처님이 말해 주는 장면이다. 보통 32응신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몸을 인연 따라 수없이 나타낼 수 있다. 보살의 명호 가운데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가장 중시되는 이유가 이 장(章)에서 밝혀지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 62억 항하사 모래알 수만큼의 보살 명호를 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한 보살이 전체의 보살 대역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을 뜻하는 말이다. 불교는 중생이 있는 곳에 불 · 보살의 본원이(本願) 있다고 말한다. 중생의 고난을 없애주는 대비원력이 있어 중생을 관찰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을 자모(慈母)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연 따라 중생을 대하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응신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응신은 중생의 업보신(業報身)이 아닌 원생(願生)으로 나타나는 몸인 것이다. 이를 변역신(變易身)이라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살의 이타, 명상 통해 닦은 마음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㊷ 응용윤리와 불교윤리의 적용

우리 사회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지만, 그 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누구나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려는 시도가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이다. 이 학문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학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전의 윤리학이 주로 이론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 머물렀다면 응용윤리학은 수많은 사회적, 도덕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이다.

실천윤리학 또는 문제 중심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리는 응용윤리학은 윤리학의 분류에서 본다면 규범윤리학에 속한다. 응용윤리학은 응용 규범윤리학을 가리키며, 도덕의 궁극적인 기초나 본질을 탐구하는 순수 규범윤리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까닭에 응용 규범윤리학에서는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범윤리 이론을 적용한다. 가장 영향력이 큰 규범윤리 이론은 공리주의와 의무론이다. 현실의 도덕 문제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와 도덕적 의무 간의 갈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이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도덕적 의무를 따를 것인지,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행동을 할 것인지 좀처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의무론자 간에는 상반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덕적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들 간의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행위자의 인성을 중시하는 덕윤리이다.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고정된 원칙이나 규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폭넓은 식견을 지닌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덕윤리에서는 어떤 도덕 원리에 호소하기보다 바람직한 도덕 공동체를 구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과 인격적 모델을 설정하고서 이를 교육하는 데 주력한다.

응용윤리에서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을 적용하여 그 해법을 모색한다. 공리주의에서는 좋은 결과를 강조하고, 의무론에서는 보편적 원칙과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시하고, 덕윤리에서는 유덕한 성품이나 동기를 지닌 도덕적 행위자의 관점에서 선다. 세 가지 이론을 종합한다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른 이에게 해악(害惡)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를 불교윤리와 연관시킨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일 것이다. 대승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중생의 제도(濟度)를 중시하며, 이를 자신의 종교적 의무로 여긴다. 이런 보살의 삶은 도덕적 수행과 덕성의 도야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보살의 이타적인 행동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悲]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명상을 통해 닦아지는 마음의 상태이다. 따라서 대승 경전 속 보살의 선교방편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선한 의지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보살은 자신의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계율의 근본정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⑱ 성불을 이루는 실천수행

윤회, 애욕과 무명 때문

끝없이 윤회하는 중생

불자 여러분!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지은 업으로 인해 업력이 한량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이 다할 때까지 삼계(三界)와 육도(六道)의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들은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에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본제(本諦)를 알지 못하고 있다. 비유하면 비구야, 어떤 장정이 다섯 마디로 된 바퀴를 항상 굴려 쉬지 않는 것처럼, 중생들도 다섯 갈래 바퀴를 굴려, 지옥 · 축생 · 아귀 · 사람 · 하늘의 갈래에 윤회하면서 항상 굴러 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에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도 괴로움의 본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윤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삼계육도를 끝없이 윤회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윤회의 원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사윤회 하는 원인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끝없는 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제13권 '견법품'을 통해 "모든 업인 애욕 · 무명, 그것이 인(因)이 되어 다른 세상 몸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윤회의 원인을 '애욕'과 '무명' 때문이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애욕과 무명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애욕과 무명이 생겨나는 이유를 〈잡아함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과 색을 인연하여 바르지 않은 사유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키면 그 어리석음이 곧 무명(無明)이니라. 어리석음으로 구하고 욕심내는 것을 애욕이라 하며, 애욕이 짓는 것을 업(業)이라고 하느니라."

〈잡아함경〉의 교설처럼, 업을 짓는 것은 애욕 때문이고, 애욕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명 때문이고, 무명의 원인은 모든 것에 대해 바르게 보는 지견 즉 '여실지견(如實知見)'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무명 때문에 갈애(渴愛)와 애욕(愛欲)을 일으키고 업을 지으며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명의 원인은 오염심 때문

불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명의 원인은 마음의 오염 때문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마음에 번뇌의 장애와 지혜의 장애를 일으켜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며, 분별망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갈애와 애욕을 일으키며 악한 업을 짓게 합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훈습된 마음은 진여본성에 상응하지 못하고 불각(不覺)으로 쓸데없는 망심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망심은 더욱 더 커져서 오염으로 무명을 훈습시켜 나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명 때문에 생겨난 망심은 마음에 허망한 망상의 경계를 만들고 망상 분별을 일삼게 합니다. 또한 망상 분별은 또 다른 집착과 업을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생사윤회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염된 마음은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는 '무명훈습(無明熏習)'을 통해 청정한 진여본성의 마음에 망심(妄心)을 만듭니다. 또한 생겨난 망심은 무명을 훈습하는 '망심훈습(妄心熏習)'을 통해 마음에 망경계(妄境界)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허망한 망경계가 무명을 훈습시키는 '망경계훈습(妄境界熏習)'을 통해 끝없는 망념과 분별을 일으키며 갈애와 애욕을 일으키며 악한 업을 짓게 합니다.

이처럼 오염된 마음은 '무명훈습'과 '망심훈습'과 '망경계훈습' 등의 과정을 통해서 청정성과 지혜성을 갖춘 진여본성은 탁해지고 어두워져서 지혜가 의식으로 전변되어 중생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4호 | 17 | 전면광고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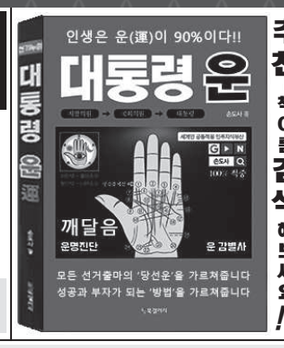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이 뭣고' 같이하실 도반을 찾습니다

지리산입니다.
한분만 모십니다.
보살님 환영 거사님
비구·비구니 가능합니다.

010-2563-6914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한마음으로
오래 계실분

010-4766-3200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공양주 모십니다.

양산 소재

010-3534-2378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법 전수(스님께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스님 무속인 환영·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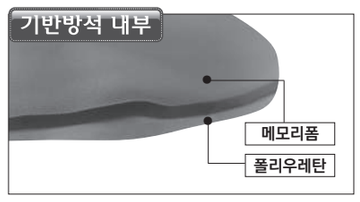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4호 | 18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3분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있음
- 풍광수려, 주차공간 넉넉함
- 보1천, 월40만(시설비5백만)
- 살아보신 후 양도도 가능

010-7121-3030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 2층 30평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70만원
-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암 자(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 가액 : 3천만원
- 위갈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
-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아름다운 사찰 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5)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정원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의령,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당, 신중당,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전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와서 보시고 협의(가액), 언제든 양도가능

010-2607-7114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삼각산자락
- 약 13평, 인법당, 기도 (수행자)적합, 교통편리
- 꼬옥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3천만원

010-8754-78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판넬,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절충

010-3714-10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양산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218평
- 건평 : 1층요사42평, 2층대웅전 26평,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공원 묘지부근
- 건강상 싯가이하로8억5천에 양도함
- 가격 : 절충

010-6425-8274

불자공인중개사 안내

- 사찰, 암자, 터, 양도양수 경력많음
- 신도 많은 경남·북지역 정보(거래)많음
- 일처리가 원만하고 비밀엄수
-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불자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4857-0027

포 교 당 안 내

- 마산 포교당 22평
-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앞, 위치 최상
- 보300만, 월30만
- 1천만원(시설)
-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사찰(물품)안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용마공원로4길 9
- 부처님3분, 절에서 치는 종, 등, 그릇, 상3개
- 가액 : 2백만원
-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함

010-6453-2110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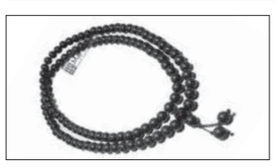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자신의 삶

자기 삶을 살지 못하면 눈물이 나요. 후회가 많아요. 자신의 삶을 사세요. 자신의 행복을 따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의미도 보람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남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아요. 남의 사랑을 찾지 말고 가슴의 사랑을 찾으세요. 자신의 길을 가세요. 자신의 가슴을 따르세요.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⑳ 300년 전홍

깊음과 아취가 있는 가을 홍차

일기일회(一期一會),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이 가을의 절정에서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운남홍차 전홍을 마십니다. 얼마 전 읽은 김훈 작가의 수필 '다녀온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이런 일을 글로 써서 받아들여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겪은 일을 겪은 대로 쓴다'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작가가 올 초에 혼수상태에서 저승을 다녀온 체험담입니다. 첫째 날은 눈이 내려 온통 하얀 적막강산에 작은 무덤이 있었고 작가는 혼백이 되어 자기 무덤가에 앉아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둘째 날은 심판자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썼던 자유, 사랑, 희망 등 단어들로 세상을 기망했다는 죄목으로 끝도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저승에서도 억눌림에 억울했던 작가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세상에 살아 돌아온 것이 눈물겹게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내 옆에 꽃이 피어 있었구나. 이걸 모르고 먼 데를 헛되이 헤매고 있었구나.' 지금 있는 바로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삶은 감사로 넘쳐날 것입니다. 삶에 감사하려해도 감사해지지 않을 때, 차 한 잔을 마셔 봐요. 차의 향기와 깊음에 온전히 몰입하다보면 덕지덕지 묻어있는 갈망들이 찻물에 말갛게 씻어질지도 모릅니다.

가을에는 홍차가 어울립니다. 중국어로 홍은 '호옹↗'하며 뒤를 올려서 발음하고 차도 '차아↗'하고 뒤를 올려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홍차는 '호옹↗ 차아↗'라고 말하는데 소리만으로도 왠지 활발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흥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단풍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마시는 붉은 홍차는 치유의 차, 흥성의 차로 다가옵니다.



고산지대 천연원시림의 수령 300년 고차수 찻잎으로 만든 '300년 전홍'.

19세기에 통무관 정산소종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중국 각지에서는 여러 종류의 홍차가 새로 개발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홍과 전홍입니다. 기홍(祁紅)은 기문홍차(祁门红茶)를 줄인 말입니다. 기문은 안호이성 황산시 기문현으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 불리는 황산 산맥의 차산지입니다. 정산소종이 소엽종 찻잎으로 만드는 것과 비교하여 기홍은 중엽종 찻잎으로 만듭니다. 기문 차산도 본래 녹차 산지였는데 청나라 말기에 푸젠성에서 관리를 하다가 귀향한 사람이 푸젠성 통무관 홍차를 모방하여 홍차 산업을 일으켜 기홍이 세계적인 홍차로 성장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선물한 차가 기문홍차 기홍입니다.

전홍(滇紅)은 윈난 홍차를 줄인 말입니다. 전(滇)은 윈난성을 부르는 약칭입니다. 윈난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꽃과 과일이 풍부하고 풍경도 신비롭습니다. 쿤밍, 리쟝, 샹그릴라에는 여행 왔다가 반해서 몇 년씩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오아시스처럼 윈난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시솽반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차산(茶山)들입니다. 평지에 밀식하는 키 작은 관목이 아니라 키 크고 찻잎도 큰 교목 대엽종 차나무가 자라고, 특히 해발 1500m-2300m 고산지대의 천연 원시림 속에는 수령 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고차수(古茶樹) 다원이 있기에 애차인(愛茶人)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윈난 전홍은 윈난성의 교목 대엽종 찻잎으로 만듭니다. 본래 윈난성의 대엽종 찻잎은 보이차를 만들어왔습니다. 1939년에 윈난 봉경현에서 대엽종 찻잎으로 홍차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그 후 란창강(중국 서남부의 긴 강으로 시솽반나의 중앙을 관통하며 시솽반나를 동서로 나눈다. 메콩강의 원류이다.) 서쪽의 바오산, 린챵, 멍하이 등 여러 차산에서 홍차를 만듭니다. 좋은 찻잎은 마른 찻잎 무게의 상당 부분이 티폴리페놀 집약체인데, 찻잎이 크고 두꺼울수록 티폴리페놀 함량이 농축되어 있어서 윈난 전홍은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홍차로 급부상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윈난 전홍은 고산지대 천연원시림의 수령 300년 고차수 찻잎으로 만든 '300년 전홍'입니다. 고차수 홍차는 사실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홍차보다 보이차로 판매할 때 가격이 훨씬 높고, 홍차는 발효과정에서 찻잎이 간혹 과발효될 수도 있기에, 고차수로는 홍차를 만들기 꺼려합니다. 윈난 전홍의 대부분은 일반등급의 찻잎, 즉 교목 대엽종이지만 평지에서 밀식하는 대지차나 생태차로 만든 홍차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찻잎을 홍배기로 건조하며 홍차의 맛을 끌어올리면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윈난 전홍이 탄생합니다.

'300년 전홍'은 차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공부홍차입니다. 시솽반나의 신6대차산 중 하나인 파사(帕沙)의 고차수 다원에 예약 주문하여 수령 300년 고차수에서 봄에 처음으로 핀 싹과 잎(1아2-3엽)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쿵푸를 배우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차를 만드는 데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제하여 만드는 차를 쿵푸차(공부차)라고 합니다. 전 공정 수제 홍차이며 홍배기로 건조하지 않고 보이차처럼 햇볕에 말리는 쇄청 기법으로 건조했습니다. 전홍을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홍배기로 맛을 올린 차를 더 좋아할 것이요, 차를 오래 드신 분이라면 300년 고차수의 기세를 사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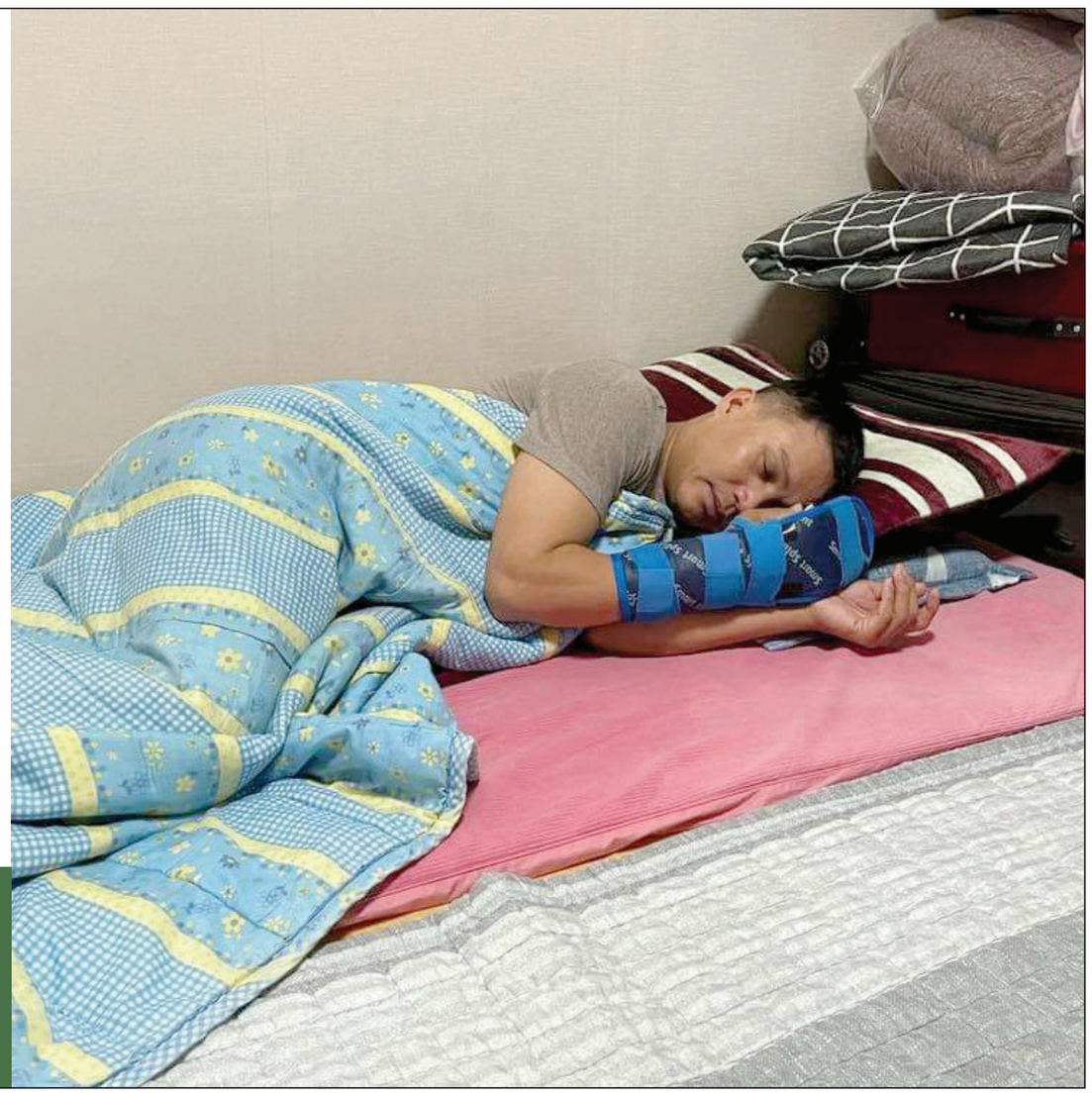
찻잎은 황금색 싹과 검은 색 찻잎이 조화를 이루고 하얀 백호가 빼곡히 덮여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면 찻잎이 마치 녹용처럼 보입니다. 수색은 짙은 오렌지색에 고차수차답게 찻잔과 찻물이 닿는 가장자리에 황금색 둥근 금권(金圈)이 두텁습니다. 젖은 낙엽향기 뒤로 들꽃향기가 가볍게 지나갑니다. '가을의 절정'을 차로 만들어 마시면 이런 맛이 날까, 절정이지만 봄의 화양연화는 아니고, 새 찻잎도 아름답지만 차를 여러 번 우리고 난 뒤의 젖은 찻잎(엽저)이 더 기운차게 살아 있는, 홍차인가 하면 보이차 같고 보이차인가 하면 홍차 같은, 한 잔을 마셔도 온 몸에 땀이 훅 솟아나는, 깊음과 아취(雅趣)가 있는 가을을 닮은 차입니다.

〈잇다it茶 대표〉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유영일의 '참나' 찾는 **행복한 책읽기** 20 백운 화상 어록



▶ 한줄 요약
부질없이 도 찾지 말고 그저 행하라.

생각만으로 깨달음 이르기 어렵다





백운화상(白雲和尙, 1299~1374)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심경', 또는 '직지')의 지은이다. 이름은 경한(景閑)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일정한 스승이 없이 전국의 유명한 사찰을 다니며 40여 년 동안 수행하다가 1351년 중국으로 건너가 석옥(石屋) 선사로부터 임제종 선법을 전수받았다. 본 소개 책자보다 앞서 1990년대에 〈백운 스님 어록〉(민족사 발행)을 펴낸 무비(無比) 스님은 해제(解題)를 통해 이렇게 극찬하였다.

"백운 스님 말씀은 마디마디마다 자유를 향해 치닫는 원둥치가 본디 비어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 텅 빈 원둥치와 맞서는 온갖 시간과 공간 또한 한갓 거울 속의 있음임을 가르친다. 그러나 저 비어 있음과, 거울 속의 있음은 있음을 떠난 있음이 아니니, 백운 앞에 펼쳐지는 끝없는 있음의 바다는 비어 있음의 눈부신 꽃이며 있음의 묘한 웃음이 된다."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2500여 년 전의 어느 날 아침, 설법을 듣고자 모여든 청중을 앞에 둔 채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부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실내는 고요가 무르익어 터지기 직전이었다.

"부처님은 도대체 무슨 별난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듯 뜸을 들이실까?"

모두가 긴장하여 현이 끊어지기 직전의 현악기 같은 표정들이었다. 좌중을 주욱 둘러보고 난 부처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연꽃 한 송이를 쳐들어 보인다.

여느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그날, 부처님이 연꽃 한 송이를 쳐들어 보임으로써 설법을 기다리는 대중들에게, 그리고 세세생생 그날의 소식을 들을 미래의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말없는 말'은 그 내용물이 무엇이었을까? 연꽃 한 송이를 보고 뭇 대중들 가운데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던 가섭 존자가 연꽃 너머에서 보고 들은 소식은 무엇인가? 가섭 존자의 눈과 부처님의 눈을 잇는,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어떤 소식을 담은 전파가 흐르고 있었을까?

부처님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 이것은 비단 2500년 전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들어 보이고 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다.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과 눈을 마주쳐 가며 불꽃의 축제를 벌였듯이, 우리 중에도 눈이 열린 자만이 불꽃놀이를 목하 즐기고 있는 중이다.

수많은 역대 조사님들과 선지식들이 이 불꽃놀이를 즐겼고, 어떻게 해야 이 불꽃놀이 속으로 들어가 모든 번뇌를 태워버릴 것인지 그 방편을 가리켜 보였다. 고려 말의 고승 백운 경한 또한 그 불꽃놀이를 맛보고는, 그 요체를 가리켜 보이기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쳤다.

"하늘과 땅, 이 우주 사이에 한 물건이 있습니다. 참되고 조촐하고 밝고 묘하며, 텅 비고 확 트이고 신령하고 막힘없고, 우뚝하고 훤출하여 스스로 드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온갖 덕을 다 거느렸건만 그 모습이 없고, 온갖 어둠 다 녹이시니 그 공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위 없는 위이고, 밑 없는 밑이며, 밖이 없는 밖이고, 알맹이 없는 알맹이입니다. 어디에도 알맹이가 없으니 어떻게 동쪽, 서쪽, 또는 위아래가 있겠습니까? 이 물건은 깨달아도 이와 같고 깨닫지 못해도 이와 같으며, 높다고 해도 이와 같고 낮다고 해도 이와 같으며, 그렇다고 해도 이와 같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옛 어른 말씀에 '이 끝없는 천지 가운데 오직 나 하나뿐이다. 이것이 추우면 온 천지가 춥고 이것이 더우면 온 천지가 덥고, 이것이 있으면 온 천지가 있고 이것이 없으면 온 천지가 없다. 위로는 하늘과 통하고 아래로는 저 황천에 사무쳐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물건이기에 이렇듯 기특하단 말입니까?"

이 '한 물건'을 깨달은 사람은 '터럭 한 오라기가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이 수미산을 온통 받아들이는' 이치를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가 눈앞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어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일'과 같이 다반사가 된다.

삼매 들어도, 업 닦아야
인과의 올가미 벗어나는
교화 행이 더욱 중요해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가르치신 묘한 이치는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시냇물이 쪽빛보다 푸르러지는 것도 '한 물건'이 자기를 펼쳐 보이는 일이고, 꾀꼬리가 벗을 불러 노래하고 제비가 둥지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도 '한 물건'이 자기를 표현하는 일이다. 모든 것 속에 절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것 속에 다 드러나 있으니, 다시 더 무슨 말을 더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물건'은 한시도 쉬지 않고 '태평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눈이 있는 이는 다 볼 수 있고, 귀가 있는 이는 다 들을 수 있다.

"불법의 지극한 이치는 저 허공처럼 둥글고 너그러워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또한 본디 다 이루어져 있어 모든 것에 나타나고 물건마다 온전히 드러나 있으니, 마치 저 푸른 산 맑은 물, 또는 밝은 달 맑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우는 새며 푸른 물 위로 펄펄 뛰는 물고기며 뫼와 물과 땅 그리고 풀과 나무들의 가늘고 굵고 길고 짧은 저 숱한 모습들은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것도 모르고 쓸데없이 의심을 내어 이 늙은이에게서 진리로 들어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진리와 계합할 수 없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적이요 신비이며,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찾는 그 '한 물건'인데 어디에 가서 부질없이 도를 찾는단 말인가? 진리란 언제나 눈앞에 있지만, 보면서도 자기가 쓰고 있는 개성의 안경에 비친 색깔을 주장하면 천리 만 리 어긋나버린다. '보면서도 보지 않아야' 그것을 '기특한 봄'이라고 할 수 있다.

진리와 계합하기 위해서는, '말부스러기나 좇아 다녀서는 안 된다. 어지러운 말의 숲을 시원스럽게 뚫고 나가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깨칠 수 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머리로 도를 배우고 깨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도모하는 일이다. 널리 배우고 많이 주워들은 것으로 이야깃거리를 삼는 것은, 누에가 고치를 만들어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과 같다. 팔만대장경은 물론이고 수많은 조사 스님네들과 선지식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가 다 방편일 뿐이니, '그물이나 통발을 던져버리지 못하여 흙덩어리를 좇는 어리석은 개꼴'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옛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진리와 이 마음이 무엇이 다르기에 어찌 수고로이 경전의 뜻을 찾는가? 본디 마음은 스스로 알음알이를 끊어버렸으니 지혜로운 이는 다만 배울 것 없는 이 자리에 환히 밝다.' 그러기에 여러 형제들에게는 경전의 가르침도 쓸모없고, 수행하고 예배함도 쓸모없으며, 몸을 태우고 뼈를 달구는 고행도 쓸모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날과 지금과 앞날의 모든 부처님과 팔만대장경의 뜻을 다 알아 높은 법상에 걸터앉아서 폭포수 같은 말을 쏟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묘한 진리를 갖추어 말하되, 구름이 일고 비가 쏟아지듯 하여 감동한 하늘꽃이 떨어져 땅이 황금이 되고 바위들이 모두 머리를 끄덕거려도, 또한 수많은 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안다고 해도, 그것은 한생각이나마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업을 닦는 것만 못합니다."

총명하다고 해서 업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음알이를 통한 지혜로는 나고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깨달음은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서 존재 전체로 체득되지 않고서는 '인과의 올가미'를 벗어날 길이 요원하다.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

백운 스님은, 깨달음의 공부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지만, 반드시 화두를 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을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도인을 찾아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끄러움을 떠나 고요함 속에서 지내는 것도 반드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누더기옷을 입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살면서 하루 한 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 된 사람'으로 여기는 자칭 도인들이라도, 번뇌가 다하지 못하고 이치와 지혜를 밝히지 못한다면 부질없이 늙어버릴 것이다. 이런 식의 모든 진리 추구는 '작대기를 높이 들어올려 달을 따려는' 것과도 같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나고 죽는 큰일'에 대한 의문부호를 마음 가득 품는 일이다.

"하루 스물네 시간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나고 죽는 큰일을 생각하되, 온갖 의식 활동을 떠나 범인과 성인의 길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씀이 없음과 함이 없음을 배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길러 한결같이 무념이 되고 한결같이 어둡지 않아 마침내 온갖 기댈 곳이 다 사라지고 깊고 깊은 곳에 이르면, 저절로 진리와 한몸이 될 것입니다."

바깥으로 쫓지 말고 마음의 빛을 안으로 비추어 '저 바탕을 깨달을 뿐 부디 끄트머리를 쫓지' 말아야 한다. '그 바탕만 얻으면 그 끄트머리는 저절로 온다.' 끄트머리가 무엇인가? 중생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살림살이이다. 세상 살림은 끄트머리에 불과할 뿐 중심이 아닌 것이니, 오직 중심만을, 바탕만을 찾으려고 애쓸 일이다.

"지극한 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고 넓고 텅 비고 묘하고 순수하고 빛나고 신령하게 밝아 말로 형용해 설명할 수 없고 알음알이로도 미칠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밝게 통달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으로, 교화를 돕게 되는 것이지요."

〈작가〉





대행 스님

우리의 차원이 높아져야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다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불사음계이니 일체의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까?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불음주계이니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않으며 자기와 남을 위해서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이 오계를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모릅니다. 이 "불살생계이니" 한 것은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업이나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항상 관하고 하십시오. 관하고 하시게 되면 그 살은 약이 되고 그 혼은, 즉 말하자면 환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진짜 살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하고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러죠. 공생 공심 공체 또는 공용 공식 한다고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도 다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하고 바로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 가지고도 지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들을, 즉 말하자면 미생물에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생명이라는 것은 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불살생계이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남을 죽이면 꼭 내가 죽는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남을 해하면 내가 해해진다. 이게 질서 정연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서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을 서로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공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심으로 사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과 의식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의식이, 생명이 어째서 내가 아니겠습니까. 다 나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물 한 컵을 먹고 빵 하나를 먹어도 같이 먹는 것이고 또는 잠을 자도 같이 자는 것이고 또 움죽거리는 것도 같이 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체고요. 그리고 공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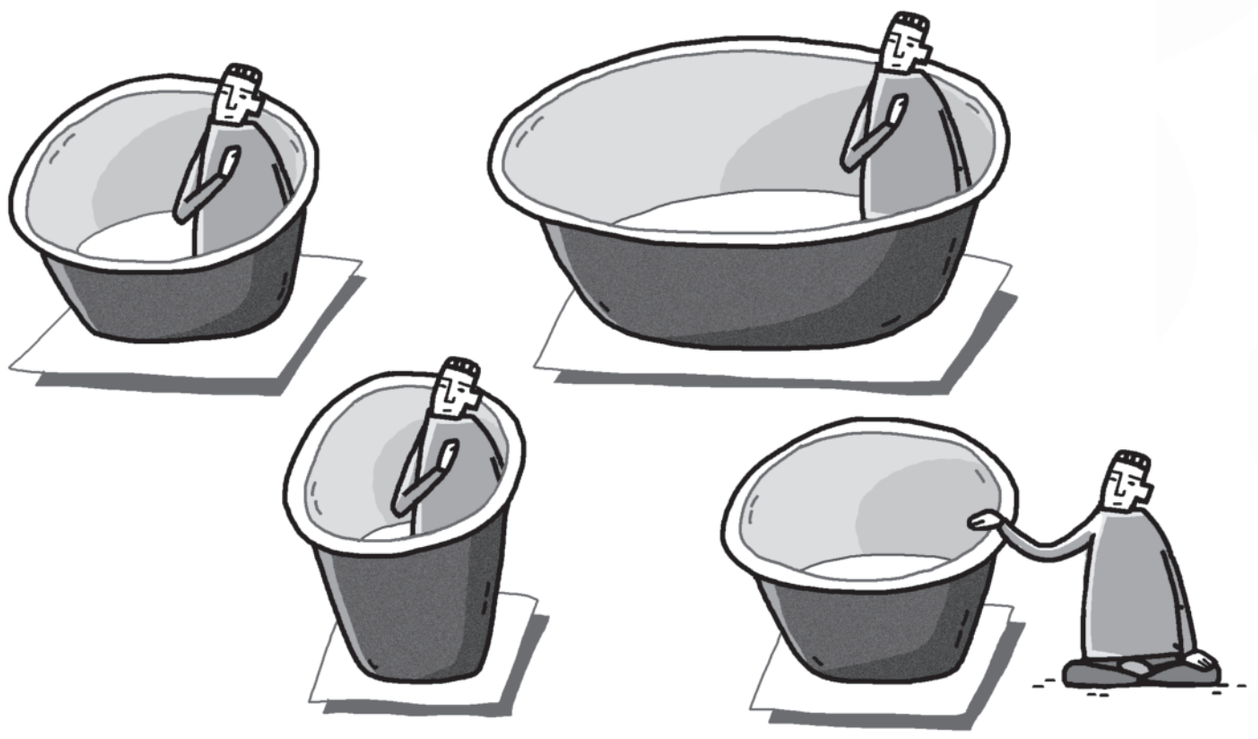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는 오늘 저녁에 빵을 먹고 딴 집은 큰 좋은 요리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좋은 요리를 먹는 거보다 낫습니다. 그 뜻을 잘 새겨야 합니다. 내 분수를 지키고 내게 없는 남의 거를 먹으려고 해서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분수대로, 내가 사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마음 편안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불사음계이니 일체의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청정케 하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지금 부인을 하나도 모시기 어렵습니다. 애들하고 부인 하나하고 자기하고 살기도 상당히, 여자나 남자나 그건 똑같습니다. 다 어려운 처진데 그거를 하나 둘 해 놓고 셋 해 놔 보세요. 얼마나 지옥고를 받아야 할는지 아마 그 사람사람이 다 지옥일 겁니다. 사는 게 지옥이죠. 한 철 간단하게 때울 거를 말입니다.

우리 인생 한 철이 긴 줄 아시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 이 초가 몸뚱이라면 이 불은 생명이며 타는 건 바로 마음입니다. 이것이 점점 자기 몸을 태워 가면서 자기 몸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늙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어려서는 철몰라서 모르고 늙어서는 늙어서 힘들고, 자는 거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고 나면 사는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남의 거를 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탐을 했다 하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면 도둑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묘한 도리가 있거든요. 자기 주인공더러 '굶기든지 살리든지 또 먹이든지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합니다.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살면 바로 뿌리가 자기 싹을 살리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리기 이전에 벌써 마음부터, 겉마음이 벌써 남의 걸 탐내는 마음부터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탐내지 않는다면 스스로서 복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복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꼭 복이 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불망어계" 한 것은 일체 거짓말하지 말고, 입을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입을 조심해라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그 한 번 거짓말 한 걸로 인해서 수십 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번으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수십 번을 해야 돼요, 그걸 메우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옥이 더 어디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옥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형제들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형제나 친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엇각이 되고 안 보려고 하고 이럴 때, 그때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쪽에서는 이쪽이 잘한다고 그러고 이쪽에선 이쪽이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건 자비한, 바로 사랑하는 고운 마음씨죠.

그러니까 이 오계도 말만 듣고 그냥 아무렇게나 넘긴다면 그냥 오계 받으나 마나죠. 그래서 전에는 불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또 남의 여자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유하게 했어요. 그걸 바꾸어서 '과음하지 말라. 내 생명같이 아껴라. 내 몸속에도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어찌 아끼지 않아서 되겠느냐. 또 죽은 고기를 먹을 때는 그것도 관하면 보살행이 돼요. 죽은 고기는, 즉 말하자면 몸으로 먹으면 생명을 돋워 주니까 약이 되고 그 영혼은 건져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려면 그것부터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몸 하나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공생이 아닌가.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도리를 모르면 파워가 생길 때가 있어요. 파워가 생길 때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놈은 살고 지는 놈은 죽는다는 얘기죠. 죽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살이 굳어져요. 살이 굳어지면 그게 암이 되죠. 왠 줄 아십니까.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박사 학위를 따고도 심성 의학으로서의 이 도리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를 모르니까 고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50%는 본인들이 해야 하고 50%는 의사한테 맡겨라. 의사한테 맡기되 맡길 것만 맡기지 아무거나 맡기지 말라, 또. 외려 멀쩡했던 사람을, 그대로 두면 다 이 머리에, 골수에도 물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 가는 바로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다…. 이렇게 자기 형체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에게 그 몸뚱이 전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 다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망가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50%는 내가 마음

☞ 22면으로 계속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하늘이 다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말고 그냥 웃어라

☞ 21면에서 계속

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의사와 나와 둘이 아닌데 어찌 잘못되랴. 너만이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어.' 한다면 잘못되지 않겠죠. 정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거를 아예 거기다 그냥 맡겨 버려요. 그냥 다 던져 버려요. 그러니 의사는 의사대로 고통이고 이 사람은 사람대로 고통이고 잘못되고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공심으로서 공용으로서 공체로서 편리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음주계이니" 한 것도 절대로 술을 과음하지 말며 자기와 남을 위해서 분수를 지켜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시죠?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망주가 되고 조금 먹으면 약주가 되죠. 살도, 이 혈관도 통하고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병이 있는 데다가 또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판단을 해서 할 일이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식구도 귀찮게 되죠. 또 자식의 교양에도 그거는 좀 불충분하죠. 자손들이 자랄 때에 부모들이 하는 거, 꼭 그것은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가 술 먹는 게 진저리가 나서 자식이 안 먹는다고 아주 맹세를 했는데도 술꾼이 돼 버렸어요. 그건 왜가. 아주 머리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보는데 싸우고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공부도 못 해요. 제대로 공부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괴롭다느니 뭐니 하지 않아도 그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려면 첫째, 부부가 잘 생각하셔야 하고 또는 자식한테 효도는 받지 못할지언정 잘 살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바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잘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한다는 거는 은소반에 받들고 금소반에 받들고 뭐, 돈으로 많이 드리고, 이렇게 잘해 드리고 이래서 행복하게 해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자식들이 요만큼만 말을 부드럽게 해 줘도 좋아하십니다. 또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잡숴 보세요." 한다면 그것이 별 돈이 안 들어갔어도, 자기가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뿐이 아니지만요.

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침에 일 나갔다가 저녁에 올 때에 떡집에서 떡 하나만 사면 돼요, 여기서 케이크 사듯이. 꽃 한 송이만 사면 되고요. 물 한 그릇만 떠 놓으면 되고 향 초 그것만 켜 놓으면, 그리고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그 위패를 써서 놓고요. 위패를 쓰지 않는다면 영혼이 접할 데가 없습니다. 꽃도 그래서 해 놓는 겁니다. 어디다가 응접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응접을 하고 '야, 너희들이 그래도 나 죽은 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식구가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하는구나. 착하구나, 착해!' 하고선 그저 어떡하든지 잘되게 하느라고 긍긍하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다니니까 못 한다, 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으니까 못 한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도 그게 한몫하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부모를 갖다가 버리려고 지게에다 지고 가는데 아들이 따라오거든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가요. 그런데 왜 할머니를 그렇게 내버리고 가느냐고 하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쳐 놓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갖다 버리라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고, 애가. 그러면서 그거를 막다가 막지를 못하니까 어머니 갖다가 버린 지게를 다시 지고 내려와요. "그 지게는 뭘 하느냐, 인제 다 썼는데." 하니까 아버지 늙으시면 져다 버려야 될 거 아니냐 했단 말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선 지게를 달라고 그래선 자기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부모를 내가 생각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내 부모가 생각을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복을 받고 마음에 따라서 흥겹고 또 고가 없어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 고는 없다는 얘깁니다. 마음은 항상 공심으로서, 공생으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 진리를 따라서 사시게 된다면 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는 끝에 한 번 더 말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찌 고가 없겠습니까. 괴로움도 있을 거고, 아주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렇게 스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정신계가 물질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 정신계가 이 물질을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오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영원한 근본 자체가, 자기가 없어지면 육신은 그냥 송장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송장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등 동물인 사람이 돼 가지고도 진짜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들더러 그러죠. 아무리 이 하늘이 다 무너지고 당신네들 식구가 다 깔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말고 웃어라. 힘이 있으면, 진짜로 믿으면 웃어지고 믿지 못하면 아등바등해진다. 믿는다면 정말이지 진짜 탁 닿는다 이거야. 그러나 믿지 못하고 아등바등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성이라는 이 주인공은 위대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망하게 두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우리 자식이 영 안되고, 여러 가지죠. 왜 자식이 시집도 못 가고 나가서 자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치가 여러 가지 각색이죠. 그런 건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때리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외려 더 달아나가죠. 그러나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추운 데 나갔다 왔으면 "얘, 너 얼마나 춥니? 밥은 먹고 다니니? 난 무척 걱정했다." 그러고, 나가서 일할 때면 하다못해 냉장고 바깥에라도 그렇게 말을 써서 딱 붙여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요량이에요. 그리고 또 관하세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나의 주인공과 네가 둘이 아닌데 너만이 모두 잘 이끌어 줄 수 있잖아. 너만이 지켜 줄 수 있어. 아들의 길이 캄캄하다면 헤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 간절히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자식은 좋은 자식으로 잘 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화부터 내는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가 있다면 바로 과거로부터 어떻게 부모가 살아왔으며,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아온 영이 자기한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금은 금대로 금방에 있을 거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 방에 있을 거고 넝마는 넝마대로 넝마전에 있을 거고 이렇게요. 끼리끼리, 배는 배대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잘못도 있고 자식의 잘못도 있고 그렇다면 서로가 잘못 안 되게 둥글게 만들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해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고 지금 현재의 물질계에서 허덕이는 그것만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그건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신계로는 통신이 되지 않거든요. (중략)

근데 포기해서도 안 되죠. 마음은 체가 없다. 한 번 넘어서는 거예요. 체가 없다. 우리 차원이 높아져야 이 허공의 에너지도 꺼내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한마음으로 인해서 인연에 관한 건, 세균성 영계성 또는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이런 거를 다 타파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불교니 할 거 없이 그저 '부처님! 주여! 알라신이여!'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날 좀 살려 주시오.' 뭐가 어떻고, 자식이 어떠니 남편이 어떠니 하고 그렇게 하거든. 한생각이면 될 거를 나무 한 짐 해 오는 거나 똑같아요.

마음도 체가 없는데, 내가 공해서 없는데 그 고가 어디 붙을 데가 있습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고정됨이 없이 그저 자꾸 돌아가는데. 그럼 물을 마셨는데 내가 물을 마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듣게 하는 것은 동시에 오신통이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들은 거고 본 거지, 내 생명체들이 안에서 다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이 해 주기 때문에 본 거지 자기가 어떻게 봐요? 더불어 같이 보고 더불어 같이 들었고 더불어 같이 먹었고 더불어 같이 살고 움죽거리고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냉정히 따져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랑하라.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입으로만, 이름으로만 부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라고 했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네 몸과 내 몸이 전체가 다 둘이 아니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항상 형성되고 진화되고 이렇게 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느니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남의 부모가 다 남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돌아가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랬는데 어떻게 지금 내 부모만 내 부모고 내가 기르는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하겠느냐. 전자부터 이렇게 자식이 됐었고 부모가 됐었고 한 인연이 이렇게 무섭게 이끌고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자비하게 사랑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아주 무슨, 벌어진 장사꾼의 이름처럼 돼 버렸어요. 귀중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어떻게 헤픈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오계 받으신 거, 이것이 지금 보이는 데에서 이거를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러분의 몸에 마크가 붙은 거와 같아요. 내가 작년 그러껜가 이때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는다고요. 꼭 표시가 있어야 들여보낸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당장 죽으면 그 마크를 보고서 모셔 가고 그 마크가 없으면 지옥으로 먼저 들어가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먼저 들어가듯. 경찰서에 들어가서 웬만큼 다 서류를 꾸려서 해 가지고 검사로 올라가 가지고 검사가 또 해 가지고 판사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그 위대한 마크가 있다면 그냥 무사통과거든요, 무사통과. 이게 그런 마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오계를 받고 십계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우니라. 스님네들은 십계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이 신도들은 단 오계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오계를 받게끔 한 거죠. 오계라도 잘만 받으면 그거는 무사통과예요. 못 믿거든 요담에 한번 보세요. 요담에요, 내가 지금 살아 있어서 못 보니까 한 번 요담에 꼭 내가 보겠다 하면 그대로 보여져요. 또 때에 따라서는 가르쳐도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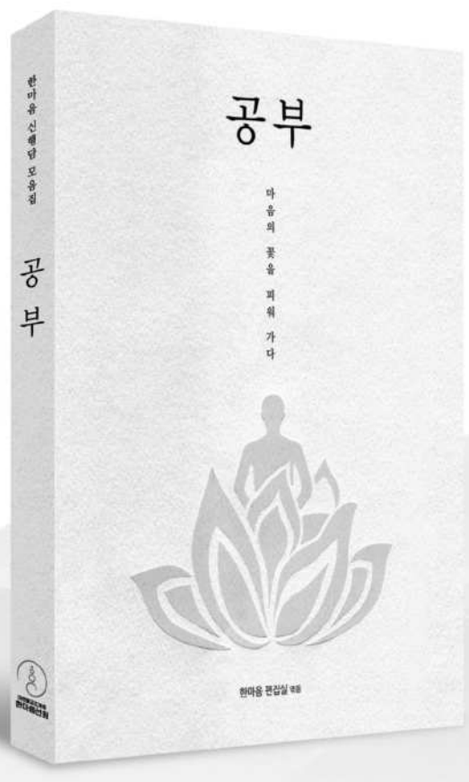
사람은 겉으로 못 보지만 그러나 이 공부한 사람은 다 보죠. 갈빗대가 몇인지도 다 봐요. 외려 가서 펼쳐 놓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천상 꿈이라고 붙여야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하하.

하여튼 여러분이 살면서 고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허허, 이것 또 물이 파도가 치는구나. 바람이 불지 않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이렇게 그냥 그게 시적이죠. 아주 얼마나 좋아요. '바람만 안 불게 한다면 물은 잔잔할 텐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선 진짜로 믿는다면 웃음이 나고, 그런 말을 해 놓고도 믿지 못한다면 바둥바둥 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온통 야단나죠. 그게, 그게 어디 진짜 사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없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살생계이니 일체를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며 내 몸과 같이 아끼겠습니까.
불투도계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불사음계이니 일체의 삿된 마음과 음심을 버리고 항시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까.
불망어계이니 일체 거짓말하지 않고 입을 조심하여 항상 진실되게 살겠습니까.
불음주계이니 절대 술을 과음하지 않으며 자기와 남을 위해 분수를 지키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8년 6월 21일 국외지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마하몰 www.mahamall.co.kr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현불 수상 |

아버지의 유산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출가 전 귀의한 아들 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흰 부처님 의지해 사느냐?
나는 내 스스로를 믿고 산다"

세수가 90세인 올해 어느 날,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쉬셨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
생전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
"우리에게 전해진 유산입니다"

아침울력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전화벨이 울렸다. 큰형님이었다.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것 같으니 급히 오라고 하였다. 어제 통화할 때는 일주일이나 한 달은 더 계실 수 있을 것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며 잠시 할 바를 잊었다.

올해 꼭 90세. 당신의 인생에 굴곡이야 없었겠냐만은 평생 거칠 것 없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출가 전 불교에 귀의한 아들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절에 다니며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니? 나는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나 스스로를 믿고 산다. 너희가 절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불교를 믿으라고 권하지도 말아라.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형제들이 모두 모였다. 내가 출가하고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인 건 35년 전 할머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이다. 중환자실에 누워계신 당신은 그리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다. 다른 환자들처럼 링거를 몇 개 꽂고 입을 조금 벌리고는 약한 호흡을 하고 계셨다. 의식을 찾지는 못하지만 가끔 침을 삼키시는데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잠시 더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온기가 줄어든 손을 잡고 아들들이 온 것을 알려드렸다. 나직이 염불을 외우며 귓가에 말씀드렸다. "나무아미타불, 걱정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중환자실이라 계속 머물 수는 없었다. 의사 선생님이 아침을 먹고 와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자 전화벨이 울렸다. 다시 병실에 도착하니 당신의 마지막 심장박동이 스러지고 있었다. 마지막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다.

"나무아미타불, 편히 가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형제 중 하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마시고 편히 가세요."

다들 담담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임종을 맞을 때 넷째가 갑자기 '엉엉' 하며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를 비롯해 형제와 가족들 누구도 애통하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입관 때 큰형수님이 잠시 소리 내어 슬퍼했을 뿐이다. 35년 전 할머니 장례식 때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우리 형제들도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보내고 있었다. 성복제를 지내며 잠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했다. 각기 유전자의 장단점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 좋고 나쁨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딱히 불만이 있지는 않았다. 다만 생전 아버지의 성실성과 부지런함 그리고 우직한 책임감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림과 글씨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삶을 혼탁하게 하는 잡스러운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고지식함도 모두에게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형제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아버지를 닮은 것임을 새삼 느끼고 알 수 있었다.

70세까지 열심히 일만 하시더니, 은퇴한 뒤 당신의 삶은 나름 근사했다. 한동안 국내외로 거침없이 여행을 다니시더니, 복지관에서 중국어와 수영도 배우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댄스스포츠에 몰두하시며 후원금도 아낌없이 내곤 하셨단다. 몇 년 전 내게 오셔서는 봉사점수를 수천 시간 쌓았음을 자랑하기도 하셨다. 아들이 있는 절에 왔으니 부처님께 인사드린다고 법당에 참배도 드리고 스님들께도 예의를 잊지 않으셨다. 가끔 통화할 때면 당신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법명을 부르던 애틋한 당신의 목소리가 귓전에 선하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못 해본 말 지금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당신의 유산은 당신의 당당하고 근사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습관이 바로 네 인생이다

우리의 하루는 습관에 의해서 시작되고 습관에 의해 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할 것입니다.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윌리엄 조이스는 "질서를 습관화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흥미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하나씩 축적해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행위들이 좋은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기만의 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었어요.

〈위대한 유산〉을 쓴 찰스 디킨스는 오전 7시에 일어나 8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9시에 서재에 들어가면 오후 2시까지 꼼짝하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같이 두 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마의 산〉으로 유명한 토마스 만은 아침 8시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는 9시에 서재에 들어가 1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대여섯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오후에는 달리기나 수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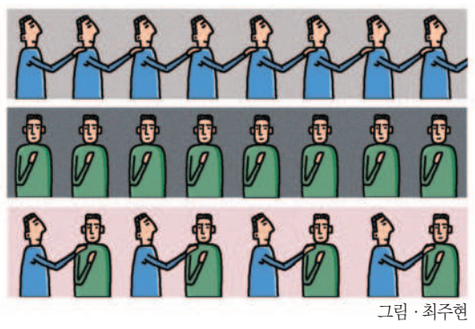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좋은 습관은 성공으로 이끌지만, 나쁜 습관은 실패로 이끌고 가버립니다. 공부하는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정리정돈을 잘 하는 습관 등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술 마시는 습관,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 화를 잘 내는 습관은 성공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습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습관들이 하나, 둘 모여 자신을 이루고 있으며, 그 습관들이 자신의 인생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강한 의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려고 자신의 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는 뇌를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습관은 연속된 마음가짐입니다. 반복된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습관이기에 버리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1일 정도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뇌를 설득하여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종단 · 법인간 소통창구 설치돼야

조계종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현행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2014년 법인법 제정 당시, 일부 법인들을 중심으로 종단 등록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종단이 법인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이를 통해 법인이 과도한 제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종단과 법인 간의 불필요한 오해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총무원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협의기구' 절차를 생략한 채, 9월 29일 법인법 일부개정안을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해 물의를 빚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4일까지였지만, 기간 중 이를 인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법제분과위원회 회의 및 연석회의에서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고, 본회의에서 종책질의까지 제기됐다.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향후 더 나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종단과 법인 간 신뢰를 공고히 구축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나눔의집, 더이상 방치 안 된다

나눔의집이 운영 논란에 휩싸인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일부 내부직원들이 제기한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나눔의집은 사회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불교계 역시 많은 상처를 입어야 했다. 경찰 ·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된 횡령 등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나눔의집을 향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나눔의집 정상화 책무를 지고 가동된 임시이사회에게는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갈등을 봉합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주어졌다. 그러나 임시이사회는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했고 급기야 양분화 되면서 파행에 이르고 있다.

나눔의집은 불교계 원력에 기대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졌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운영상의 문제로 물의를 빚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무게는 여전하다. 정상화를 두고 제기되는 갈등은 부차적인 문제다. 나눔의집이 진정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과 원칙, 역사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제 나눔의집 일부 내부직원과 운영진 간, 그리고 임시이사회 내부에서의 갈등이 과연 정상화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지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들을 개선하면 된다. 경기도와 광주시가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부차적인 갈등양상 속에 표류해선 안 된다. 관할 지자체에 주어진 관리감독의 책임을 인지한다면 경기도와 광주시는 더 이상 방관자로서 임시이사회 뒤에 숨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상화 방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2년 파송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2. 4**(토)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ANTI-BACTERIAL·DEODORIZATION 항균&소취

FDA 등록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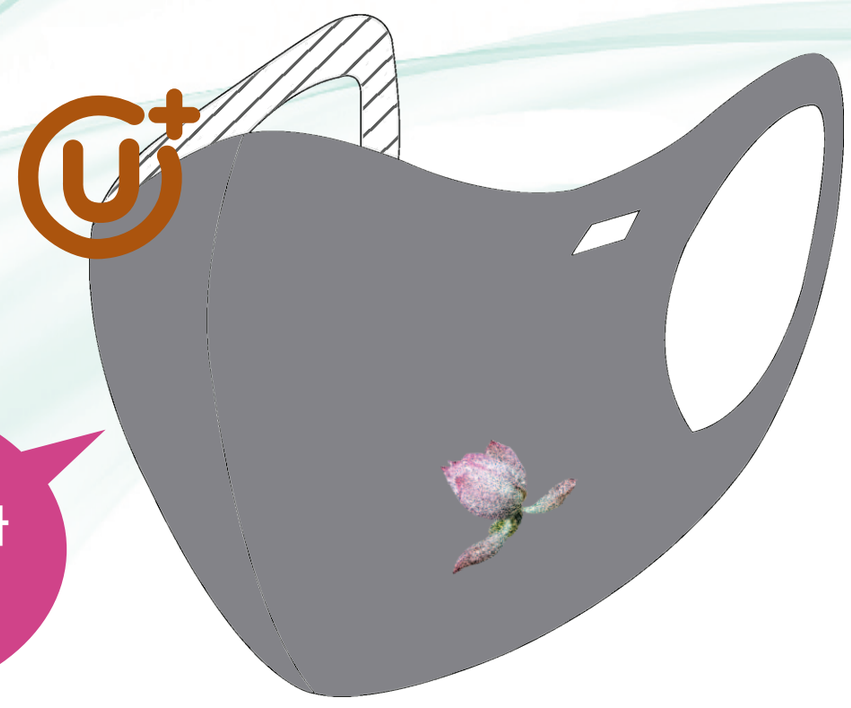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여름용 쿨 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